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43호 HYUNBULNEWS.COM 2025년 8월 20일(음력 윤6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조계종은 8 · 15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4일 서울 봉은사에서 남북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남북, 무기 대신 대화로 신뢰 회복"

8월 14일, 봉은사서 광복 80주년 평화 기원 법회

남북평화 대화 재개 촉구문 발표
진우 스님 "민족 평화 화합 기원"
정부에 특사·회담·평화정책 촉구
대국민에 민간 교류 협력 당부
연꽃 한반도 만들기 퍼포먼스도

글=임은호 기자 · 사진=김내영 기자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8·15 광복 80주년을 맞아 남북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우리 정부와 북측에 대화 재개 및 평화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14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린 '8·15광복 80주년 기념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원법회'에서 "민족 평화는 공동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회는 단순한 기도와 염원의 시간이 아닌 민족의 아픈 역사와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다시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자는 소중한 다짐을 새기는 자리였다.

진우 스님은 먼저 대국민에게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종교계의 자비심과 화합의 실천이야말로 평화의 물꼬를 트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평화는 결코 누군가 대신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지와 실천이 모여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대화를 거부하는 벽도 언젠가 허물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에 엄중한 메시지를 남겼다. 진우 스님은 "민족의 평화를 외면한 채 대결과 고립의 길로만 나아간다면 그 끝은 모두에게 불행일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하며, 무기보다 대화를 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화를 대화를 외면하지 말고 신뢰를 회복하는 여정에 다시 나서 달라"며 "민족 평화는 누구도 외면해서는 안될 공동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과 불교계가 남북 화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민간교류의 창구가 되고, 앞으로도 자비와 지혜의 실천자로서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확성기 중단과 같은 최소한의 긴장완화 조치에 불교계의 환영 뜻을 보낸 스님은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들이 남북 간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종단도 마땅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남북평화를 위한 대화재개 촉구문도 발표됐다. 법회에 동참한 참가자들은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대독한 촉구문에서 남북 당국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재개 및 평화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남북관계 개선 계기를 만들기 위해 남북 간 특사 교환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 재개 △ 서로를 향한 일체의 정치, 군사 행위 중단 촉구 △민간 교류협력 적극 보장 등을 요청했다.

법회를 주관한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태효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해방과 도시에 분단을 맞아 80년이 된 지금까지도 분단을 해소하지 못한 채 갈등과 적대를 거듭하고 전쟁 위협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8·15 광복절에 맞춰 봉행됐던 동시법회가 2015년 이후 중단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평화의 목소리가 한반도에 울려 퍼지길 기원했다.

각계각층에서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법회에 대한 평화를 향한 행보에 기대감을 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한반도 평화는 정치적 목표가 아님을 확실히 하며 "후손들에게 분단으로 인한 적대와 전쟁의 공포가 아닌 평화와 번영을 물려주자"고 했고,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밝혀주는 연등을 높이 들어 한민족이라는 환한 미래를 향해 지극히 정진해 나가자"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남중 차관의 대독에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화쟁과 원융회통의 정신으로 남북 평화 공존을 향한 발걸음을 불교계가 이끌어 달라"고 부탁했다.

사부대중을 대표해 민추본 사무총장 덕유 스님과 유주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은 평화통일 발원문을 통해 "겨레가 합심해 통일을 향한 뜻을 모아 통일정토의 자양분을 삼고 분단을 건너는 징검다리가 되는 대비원력을 실천하겠다"고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남북 평화와 화합을 발원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참석대중은 연꽃을 한반도 지도에 한 송이 한 송이 정성을 다해 심으며 '평화한반도 만들기'를 실천했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차별 없는 존엄과 책임을"

조계종 사노위, 8월 12일 입장문
"죽음 대하는 사회 태도 변화를"

7월 7일 구미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숨진 23세 베트남 청년부터 8월 9~10일 전남 고흥 새우양식장에서 감전사로 숨진 태국·베트남 노동자 2명, 곡성 농로에서 지게차에 깔려 숨진 이주노동자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어지는 이주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과를 촉구하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가 8월 12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한 사노위는 "정부는 내국인과 이주노동자를 가르지 않고 동일한 책임과 절차로 산재 사망에 대응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산업재해 없는 일터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주노동자가 존엄과 안전을 보장받는 세상을 위해 불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사노위는 8월 24일 오후 2시 30분 서울노동청 앞에서 '구미 폭염 베트남 노동자 49재 및 노동권 보장대회'를 열고 세상을 떠난 이주민 노동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한편,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현대불교신문 인스타그램 개설

독자와의 소통 채널 다각화
AI로 캐릭터 '초심이' 개발
뉴스·콘텐츠로 불법 홍포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이 독자와의 폭넓은 소통을 위해 인스타그램(@with hyunbul)을 개설했다. 또 AI를 활용해 인스타그램 캐릭터 '초심이'〈사진〉를 개발해 MZ세대들에게 불교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안내한다.

현대불교신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는 불교 경전의 주요 경구를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진·그림과 함께 소개하는 '한컷법문'을 만날 수 있다.

피드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가 게시된다. 월요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본지에 연재하는 '위클리 선명상'을 AI를 활용해 음악으로 제작해 선보인다.

화요일에 게재되는 '초심로그'에서는 불교 관련 문화콘텐츠와 전시, 행사, 굿즈 등 '핫(Hot)'한 불교 소식을 전한다. 또 '절 초보'들이 알아두면 쓸모 있을 정보를 모은 '절쓸신잡' 시리즈도 눈길을 끈다.

수요일에는 현밀 스님이 본지에 연재하고 있는 '뭉밀이 불스타툰', 목요일에는 불교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는 콘텐츠인 '불맛창작소'가 게시된다. '불맛창작소'에서는 '불맛나는 창작어 사전'과 '부캐법명 연구소' 같은 참신한 콘텐츠가 선보인다.

금요일에는 그 주의 불교계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클리핑이 제공된다. 〈관련 기사 5면〉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인스타그램 (@with hyunbul) 바로가기
WITH_HYUNBUL



조계종 새 원로의원에 장윤 스님 선출

원로회의, 8월 13일 제79차 회의서
수해 피해 사찰·총무원 화재 보고도
"삼보정재 유실, 원만히 수습되길"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새 원로의원에 장윤 스님(전 등사 회주)이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자광 스님)는 8월 13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제79차 회의를 열어 지난 6월 10일 제234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장윤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원로회의에는 21명 가운데 15명의 의원 스님이 참석했다. 제78차 원로회의에서 원로의원으로 선출된 보광 스님도 자리해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원로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무원 집행부는 최근 수해 피해 사찰 현황과 복구·지원 활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 피해와 복구 계획, 동화사 현황을 보고했다.

앞서 원로의장 자광 스님은 "종단에 뜻하지 않은 화재와 수해로 삼보정재가 유실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총무원장 스님과 중앙종무기관의 노력으로 잘 수습되고 있다"며 "원로의원 스님들은 종단의 큰 기둥으로서, 종단 위상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근래 세계 곳곳이 유례없는 기상이변과 재해로 고통받고 있고, 우리 한반도도 집중호우로 여러 지역 사찰과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며 "하루속히 상처가 아물고 일상의 평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8월 13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제79차 회의를 개최했다.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 장윤 스님.

이어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관 화재에 대해 참회했다. 스님은 "개인의 부덕과 불찰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종단 안팎에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을 원로 스님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뼈아픈 각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종무행정의 내실을 재정비하고 수행과 교화의 정신이 깃든 청정도량으로 청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언제나 묵묵히 종단의 길을 이끄시며 중중무진한 가르침과 연비의 서원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원로의원 스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신임 원로의원 장윤 스님은 상묵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4년 동화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8·9·11·12·13·14·15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재정국장, 은적사 주지, 대전사 주지, 전등사 주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4월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으며, 현재 강화 전등사 회주다.

불교음악원장에 박범훈 재위촉

진우 스님, 8월 12일 위촉장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에 박범훈 동국대 석좌교수가 재위촉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12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박범훈 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임기는 2년이다.〈사진〉

진우 스님은 "불교음악원은 불교음악의 계승과 발전은 물론 포교·전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대인들에게 불교음악의 가치를 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범훈 원장은 "불교 포교를 위해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찬불음악을 창작해 대중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불교계, 정청래 대표에 '국민 평안' 당부

진우 스님 "감정 배제 '법' 우선"
상진 스님 "국태민안 함께 노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 왼쪽)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사진 오른쪽)은 8월 11일과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예방을 받고 국민을 평안하게 하는 정치를 당부했다.

불교계 지도자 스님들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11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정 대표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진우 스님은 "여당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잘 모시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수장의 역할"이라며 "국내 큰일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당대표를 맡아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어 스님은 〈법구경〉의 '나를 이기면 세상을 이긴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불교에서는 법이 가장 우선이다. 해석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법은 법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그러면서 〈신심명〉의 '지도무난 유혐간택(至道無難 唯嫌揀擇) 단막증애 통연명백(但莫憎愛 洞然明白)' 구절을 언급하며 "지극히 도는 어렵지 않다는 것처럼 도를 법으로, 정치로 보고 간택을 멀리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기 위주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임으로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처럼 감정을 빼고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탕평 인사를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원하는 세상도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히 사는 세상 아니겠나. 자비로운 부처님의 뜻에 따라 국민 평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8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2층 총무원장실에서 정 대표의 예방을 받았다.

상진 스님은 "당대표가 돼 다시 만나 정말 반갑고 반갑다. 앞으로 정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평안하게 운영하고 국태민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태고종이 함께 축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처음 당대표를 맡아 부족한 점이 많다. 스님들께서 잘못한 점은 경책해 주시고 잘한 점은 격려해 주시길 바란다"며 "태고종 내 산적한 문제들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신중일 · 김내영 기자

최휘영 신임 문체부 장관, 불교계 첫인사

불교 유·무형유산 관심 당부
"불교문화 보존 · 전승 지원"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 왼쪽)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사진 오른쪽)을 예방하고 첫인사를 했다.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최휘영 신임 문체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잇따라 예방하며 첫인사를 했다.

최휘영 장관은 8월 11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문화 지원과 선명상 보급을 주제로 대화했다.

진우 스님은 "불교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 역사와 불교문화가 함께해왔다는 방증"이라며 "일각에서는 종교적으로 구분 지으려 하는데, 국가유산 지원이 종교 지원으로 곡해되지 않도록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전 세계가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갖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명상 확산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최 장관은 "최근 서구에서 사색과 명상, 마인드풀니스가 주목받고 있다. K문화 확산과 함께 선명상에도 외국인들이 관심 많은 것"이라며 "우리 고유 정신이 반영된 명상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은 국민 정신 안정에 기여하고 묻지마 범행, 우울증, 자살 등 사회문제 예방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서울 개운사 부지에 중앙 명상센터를 조성해 세계적으로 마음 건강을 주도하는 허브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이어 8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상진 스님은 "우리 사회가 불교무형유산들의 가치를 인지하지 못해 보존과 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태고종이 보유한 방대한 무형문화유산이 잘 전승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 장관은 "반만년 우리 역사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전통문화의 보고가 불교인 점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유무형의 불교문화유산이 잘 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잘 살피겠다"고 답했다.

신중일 · 김내영 기자

다목적 원톱 시스템 이란?

다목적 염불법당시스템은 전기 연결없이 간단하게 들고 다니며 사용함으로 법당 50평 사용 및 산신각, 소각장, 야단법석, 방생용, USB사용과 염불소리 연출, 설법, 성우소리 연출, 편집, 녹음기능 및 전기연결로는 법당서 계속사용, 전기없이 야외에서는 9시간 사용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5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98만원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 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을금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스님의 어진 그림자, 창건 도량서 빛날 것”

봉안당 효경 대종사 영결식
8월 14일 법안정사서 봉행
원로 스님 대거 참석 ‘추모’
횡성 대각정사서 다비 엄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8월 14일 서울 목동 법안정사에서 조계종 대각회장으로 봉행된 ‘봉안당 효경 대종사 영결식’ 후 대종사의 법구를 횡성 대각정사로 이운하기 위한 의식을 설행하고 있다.

“봉안당 효경 대종사님! 서방정토에는 잠시 계시다가 속히 돌아오소서. 멋진 미래세상이 스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첫 대형 도심사찰인 법안정사를 창건하고 지역 포교를 선도했던 봉안당 효경 대종사가 무위적멸의 세계로 나아갔다.

조계종 대각회 봉안당 효경 대종사 장의위원회(위원장 장산 스님)는 8월 14일 서울 목동 법안정사에서 ‘봉안당 효경 대종사 영결식’을 재단법인 조계종 대각회장으로 엄수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명예원로의원 수봉 세민·송원 설명 대종사, 원로의원 두산 일면·무심 보광 대종사, 전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 육지장사 회주 지원스님 등 종단 원로 스님들이 대거 참석해 효경 스님을 추모했다.

대각회 이사장 장산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효경 스님과의 인연을 술회하며 “‘우린 아픈 세상에 살고 있다’는 스님의 말씀을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다. 유마힐이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고 했다. 이것이 큰 스님이 ‘아픈 세상’이라 하신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정사 사부대중과 대각회 임원 스님 등은 영결을 마치고 다비까지 끝나며 스스로 다 흩어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어찌 스님의 뜻과 정신까지 흩어지겠는가. 아마도 이곳(법안정사) 도량과 횡성의 대각정사에서 늘 스님의 어진 그림자가 더욱 빛낼 것”이라고 추모했다.

학산 대원 대종사는 영결법어에서 “효경 스님은 해인사에서 일대시교를 마치고 수행정진을 멈추지 않으셨으며 이사에 두루 통달하신 이 시대의 스승”이라며 “오직 불사와 포교에 일생을 몸바쳐 오신 스님의 행적은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큰 공덕”이라고 상찬했다.

이어 ‘위산 스님의 수고우(水牯牛)’ 화두를 제시하며 “스님께서는 문을 나서서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시니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한 차 한잔하고 가소서”라고 설했다.

불영 자광 대종사는 조사를 통해 “스님께서 지금까지 닦아놓은 불사는 뒤에 오는 후학들의 평탄한 길이 되고 귀의처가 될 것”이라며 “불국정토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마시고 속환사바하시어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스님과 평소 인연이 각별했던 인사들의 추모사도 이어졌다. 대각회 이사 서해 흥교 스님은 효명 스님과 인연들을 술회하면서 “준비된 원고가 있지만, 특별하게 할 말은 없다. 스님이 벌써 그립다”고 추모했다.

원로의원 두산 일면 대종사는 “스님의 가르침은 단지 말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삶 자체가 곧 하나의 법문이었다”면서 “스님의 자비심과 원력은 모든 불자들에게 횃불이 되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서원했다.

영결식 후에는 다비식이 엄수되는 횡성 대각정사로 법구가 이운됐다. 효경 스님의 법구는 스님이 창건한 목동 법안정사를 나와 운구 차량으로 옮겨졌다. 영결식장에 모인 사부대중은 나무아미타불 정근을 하며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다비식은 횡성 대각정사에서 여법하게 엄수됐다.

한편, 효경 스님의 초재는 8월 16일 오전 10시 법안정사에서 봉행됐으며, 2재부터 5재까지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법안정사에서, 6재는 9월 20일 오전 10시 종로 대각사에서 진행된다. 마지막 7재는 9월 27일 오전 10시 법안정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AI 김순덕 할머니의 소원 “일본 사죄”

나눔의집, 9일 기림문화제
AI로 김순덕 할머니 복원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나눔의집(대표 세영 스님)이 9일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서 기념식과 기림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기림의날은 1991년 고 김학순(1924 ~1997) 할머니가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로, 201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다시 만난 나비, 세계가 하나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고 박옥선·이옥선 할머니 흉상제막식, 문화공연 등이 이어졌다. 특히 경기도는 이날 고 김순덕 할머니의 생전 모습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휴먼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할머니들의 어떤 꿈을 가장 먼저 이뤄드리도록 노력하면 좋을까요”라고 묻자 김순덕 할머니의 AI 디지털휴먼은 “글쎄, 마음 같아서는 당장 고향에 묻히고 싶지만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답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이날 나눔의집 대표 세영 스님은 “오늘 이 자리는 할머니들의 뜻을 이어가는 자리”라면서 “나눔의집은 앞으로도 피해자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 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우리 곁을 먼저 떠나신 어르신들, 본명조차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진 많은 피해자분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일깨운 역사의 증언자로 기억하고자 한다”면서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5월 이옥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6명이다.

임은호 기자

“조세이 탄광 유해수습 적기…한일 정상 나서달라”

日새기는회, 12일 낙산묘각사서 기자회견
지난 6월 본갱도 입구 찾아
“한일 정부 관심을” 요청

“이시다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4월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유해 발굴 지원을 지시한 상황인 만큼 지금이 한국 강제징용자 유해 수습의 적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대표 이노우에 요코, 이하 새기는회)은 8월 12일 관음종 총본산 낙산묘각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이 탄광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 정상의 결단을 촉구했다.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와 일본 노동자의 위령과 아픈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1991년 일본에서 결성된 단체가 새기는회이다. 이들은 1991년부터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들의 한국 이름을 찾아 118명의 유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한국 유족들은 피해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 유족회와 일본 새기는회의 활동으로 2013년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의 위령비가 건립됐다. 이노우에 요코 새기는회 회장은 “위령비 건립 후 한국 유족회 분들이 ‘위령비 건립으로 운동이 끝나서는 안된다. 유해를 송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이후 모임의 운동 방향성을 유해발굴 및 송환으로 확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8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이 탄광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정상의 결단을 촉구했다.

현재 조세이 탄광 사고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은 전적으로 민간 단체인 새기는회의 역량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 차례에 걸친 클라우드펀딩을 통해 5000만엔의 기금을 마련해 5회에 걸친 잠수조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월 본갱도 입구를 찾았으며, 피아(배기구)에서 옛 갱도, 본 갱도로 이어지는 통로를 확인했다.

우에다 게이지 사무국장은 “모금했던 기금들이 8월 25~27일 한일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나면 거의 고갈된다”면서 “일본 정부에 3000만엔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유해수습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 유해수습을 위해 한국사회의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국 후원 계좌: 1006-501-377562 우리은행(관음종)

문의 010-4234-5851

신중일 기자

韓日불교협, 첫 청소년교류대회 성료

8월 4~7일 日서…12명 참가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사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이하 한일불교)가 8월 4~7일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제1차 한일불교 청소년교류대회’를 개최했다.〈사진〉

한일불교 회장단(조계종·천태종·진각종·관음종·태고종·총지종)이 지원한 이번 행사에는 회원종단에서 추천한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대학생 9명 등 청소년 12명이 참가했다.

한일 양국 불교계는 2014년부터 청소년 교류 필요성을 공감하고, 관련 행사를 계획했지만 정치적 경색과 코로나19로 연기되다 올해 처음 열게 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3박 4일간 일본 대표 종단인 일련종·임제종·진언종 사찰을 방문해 일본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이들은 일련종 대본산 이케가미혼몬지에서 선조와 전쟁·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이, 연고가 없는 이들을 추모하는 미타마 마츠리 법회에 동참했으며, 임제종 본산 켄쵸지에서 2시간 동안 좌선 체험을 했다. 카와사키 소재 진언종 대본산 헤켄지에서 호마법회를 참관하는 등 일본 각 종단의 특색있는 전통 법회와 수행을 경험하기도 했다.

한일불교 측은 “앞으로 대회 취지에 걸맞게 양국 불교계 청소년들이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제43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마음의 힘 키우기
인연과 화합하기
달라지는 ‘나’
주인된 삶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기 간 : 2025년 10월 11일(토)~11월 29일(토)
총 8주 매주(토) 오후 1:30~5:30
(1주 오리엔테이션은 오후 1시~6시)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국민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문 의 : 031-470-3200/3196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新 전법교재 '실용·스토리텔링' 담아야"

교불련 전법교재 편찬위 워크숍서
심혜인 교수, 대학생 인식조사 발표
7월 대불련 캠프서 126명 설문조사
심리치유, 전통문화 등 불교 기대점
스토리텔링·체험 등 교육에 활용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8월 11일 대학생전법교재 편찬위원회 출범 및 기념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학생과 청년들의 눈높이 맞춤형 전법교재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실용성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기법, 멀티미디어 연동 등이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혜인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8월 11일 서울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이하 교불련) 대학생 전법교재 편찬위원회 출범 및 기념 워크숍에서 '대학생의 종교·불교인식과 불교입문서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날 심 교수는 7월 25~27일 열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주최 '대학생 불자 영캠프' 참여 대학생 불자 126명(남학생 54명·여학생 68명·무응답 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대학생 종교·불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불련에서 추진하는 대학생 전법교재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 조사에서 응답 대학생 중 78.6%가 '정신건강 개선'을 불교에 기대하는 최우선 가치로 꼽았고(중복 응답) 이어 윤리적 가치 실현(43.7%), 전통문화 보존(4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 교수는 "대학생들의 종교 인식은 전통적 종교관에서 실용적이고 개인 맞춤형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도 "불교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을 넘어 심리적 웰빙과 문화적 정체성의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불교 교리나 사상에 접근하는 방식도 이전의 일방적 이론 수업을 선호하기보다 구체적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실천 및 일상 적용을 대학생들은 바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것이 '부처님 생애'에 대한 접근이다.

부처님 생애에 관한 관심사 유무를 묻는 질문에 88.1%(111명)가 '관심이 많다'고 했다. 관심 있는 부처님 생애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깨달음 50.8%(64명) △마지막 35.7%(45명) △고행과 수행 26.2%(33명) △출가 21.4%(27명) △최초 설법 21.4% (27명) △제자와 공동체 이야기 21.4%(27명) △잘 모르겠다11.4%(14명) △기타 1.6%(2명) 순이었다.

심 교수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아예 몰라서 웹툰, 애니메이션처럼 요약하면 좋겠다'는 요청은 젊은 세대의 정보 수용 방식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단편적인 교리나 개념보다 연결된 이야기 형태의 정보를 선호한다"며 "이는 부처님의 삶을 하나의 완성된 서사로 이해하려는 의도를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불교수행과 학습은 사찰음식 배우기와 만들기(55.4%), 걷기명상(44.6%), 예불과 공양(34.7%) 등 일상생활과 연결 가능한 실용적 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심 교수는 "학생들은 실습과 체험 프로그램(70.8%), SNS와 커뮤니티(51.7%), 상담과 멘토링(36.7%), 온라인 콘텐츠(27.5%) 등을 통한 접근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며 "이는 불교 입문서가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서사적 구성 △체험과 실습을 동반한 참여형 콘텐츠 △개인 상황에 맞춘 상담과 멘토링 요소 △디지털 미디어와 연동된 멀티플랫폼 접근 등을 기반해 개발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전법교재 편찬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이날 워크숍에서 이상훈 교불련 회장은 새로 발간할 전법교재가 "수많은 입문서 중 하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회장은 "교불련의 대학생 전법교재 편찬사업은 대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경전공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전법교재를 엮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불교경전 체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가이드 교재 '불교 경전 지도(Map of Buddhist Scriptures)'를 스스로 찾아가는 부처님 세상은 발걸음이 가벼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날 조계종 제5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대학생 전법교재 편찬 기금 1000만원 쾌척했다. 기금은 월정사 사회문화국장 지철 스님(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이 주지 정념 스님을 대신해 전달했다.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법회

불교상담개발원, 8월 10일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종봉 스님)이 8월 10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불교상담개발원 내에서 '제11회 스스로 떠난 이를 위한 위로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서울시 종교계 자살예방사업 '살(자)사(랑하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위로법회는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불교·천주교·원불교·기독교 등 4대 종단이 협력해 온 종교 기반 자살예방사업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2015년 첫해부터 이 프로젝트에 불교계 대표로 참여해 왔으며 올해로 11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법회에는 자살 유가족과 자살예방에 관심 있는 시민 등 20여 명이 참석,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남겨진 이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회는 불교 전통의식, 영가위로법문, 불교시식, 영가에게 편지쓰기, 헌화의식, 사찰음식 나눔 행사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기도를 통해 고인을 기리고 생존자들의 삶을 응원했다.

법주로 나선 통담선원 주지 선업 스님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의 슬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청소년 인성 함양 프로그램 공모

조계종 포교부, 8월 29일까지
'교리 · 수행법 활용' 주제로

조계종 포교부(부장 남전 스님)가 미래세대의 성장을 도모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데 기여하고자 청소년 인성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포교부는 '불교 교리와 수행법을 활용한 청소년 인성·정서 함양 프로그램'을 주제로 8월 29일까지 공모전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적용 대상은 중·고등학생이며 직접 개발, 혹은 공동 개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참가 신청신청서 및 지도자 지침서와 참가자 교재 등이 포함된 청소년 인성교육계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사전 사후 효과성 검증 결과가 포함돼야 한다. 신청서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메일(rosemay@wehago.com)로 제출하면 된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연구소, '화쟁' 기반 사회갈등연구 첫발

8월 13일 1차 학술세미나
'해방 80주년 불교사 현안 연구'

올해 4월 출범한 조계종연구소(소장 원철 스님)가 화쟁 사상에 기반한 사회갈등연구의 첫발을 내딛었다.

조계종연구소는 8월 13일 서울 전법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해방 80주년 기념 불교사 현안 연구-해방 전후 불교계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화쟁에 기반한 사회갈등연구' 1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원철 스님은 인사말에서 "조계종이 직면한 한국불교사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선정하고, 객관적 자료의 발굴과 학술연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미나를 통해 전통계율 복원과 교단 재편, 대중 포교 방식 혁신의 의의와 한계를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발제에서 이창익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해방 전후 불교계의 일제 잔재 청산과 전통 계승 문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일본불교의 조선 포교 역사를 살피고 사찰령 제정과 조선불교의 식민화 과정을 짚었다. 또 일본불교 제도 이식이 남긴 구조적 변화와 총독부의 육식처대 허용과 같은 생활 양식의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해방 전후 한국불교 교단의 통합과 재편'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해방 직후 전국승려대회에서 식민지 불교제도를 폐지하고 '조선불교'로 재출범했으나, 대다수를 차지한 대처승과 비구승 간 갈등이 심화되며 1960년대 조계종과 태고종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정리했다.

지혜경 연세대 철학연구소 전문연구원은 '해방 전후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발표했다. 한용운·백용성 스님 등 근대 불교 개혁가들의 사상과 실천을 조명하고, 해방 후 광덕 스님의 불광운동, 신소천의 금강경 독송운동, 천태종·진각종 창종 등 대중화 흐름을 분석했다.

논평자로는 이종수 국립순천대 교수, 김성연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연구초빙교수,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가 나섰다.

조계종연구소는 이날 발표된 주제들을 학술논문집으로 발간하고, 올해 말 2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화쟁 사상에 기반한 사회갈등연구 성과를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조계종福·병원전법단 전문인재 양성 MOU

8월 11일, 업무협약 맺고
전문성 강화 체계 구축 추진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과 조계종 포교부 병원전법단(단장 지인 스님)이 8월 11일 재단 임원실에서 병원임상교육 전문 인재 양성과 불교적 자원봉사 문화의 제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협약은 자비와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지와 영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병원전법단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며 자원봉사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병원임상교육 공동 진행 △자원봉사자 모집 및 VMS 인증을 통한 체계적 관리 △병원봉사자 활동 관련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지원 물품 학용품, 신발, 의료물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후원 문의 02)2004-8214 2차 현지 방문 2026년 1월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2025 부산국제불교박람회 현장

부산서 펼쳐진 '불교 놀이터'

불도(佛都) 부산에서 열린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8월 7~10일 벡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성료했다. 총 249개 업체가 참가해 372개 부스에서 선명상과 사찰음식, 굿즈 등 다채로운 불교문화를 선보인 이번 박람회는 불교를 일상으로 스며들게 한 도량이었다. 〈편집자 주〉

'참나' 찾아 '마음의 바다'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마음굴림' 운영
800여 명 참여…인스타 방문 25000건
네 가지 주제로 선택하는 맞춤형 체험
소음 사라진 조용한 공간서 '참나' 만나
온라인 연계로 일상에서도 실천 이어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운영한 체험 부스 '마음굴림'에는 4일간 8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사진은 진행을 맡은 혜벽 스님과 청년회 법우들.



'마음굴림' 참가자들은 소규모 체험실에서 진행자들의 안내에 따라 '참나'와 마주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이 운영한 체험 부스 '마음굴림'이 4일간 800여 명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 인스타그램 조회수는 2만5000건을 기록해 명상과 마음치유에 대한 현대인의 높은 관심을 보여 줬다.

지난해 '바다마음 단주 명상 체험'으로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던 부산지원은 올해 새로운 프로그램 '마음굴림'을 선보였다. 북적이는 행사장 속에서도 부스 주변에는 차분하고 편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참가자들은 접수대에서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뒤 소규모 체험실로 안내됐다. 첫날과 이튿날은 부산지원 아리회가, 셋째 날은 청년회 법우들이 진행을 맡아 관람객을 맞이했다.

작은 방 안으로 들어서면 행사장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호흡과 진행자의 목소리만 남았다. 칸막이로 구획된 공간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돼, 참가자들이 편안한 자세로 앉아 안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진행자인 혜벽 스님은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그림을 보여 주며 "바다는 근본(참나), 물방울은 '보이는 나'"라고 설명했다. 모든 물방울이 바다에서 나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 마음굴림은 흩어진 마음을 근본으로 되돌려 본래의 지혜를 회복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그림 아래에는 "마음굴림이란 모든 것을 근본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본래의 지혜로운 마음이 다시 살아나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다.

체험은 △근본에 연결하기 △몸의 주인되기 △감정 되돌려놓기 △이익을 주는 관계 맺기 등 네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주제를 고른 참가자들에게는 '주인공' 개념이 소개됐다. 주인공은 내면의 근본이자 불성을 뜻하며, 마음속으로 주인공을 부르면 나 중심에서 전체 중심으로 전환되어 모든 존재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그 순간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외로움도 사라집니다"라는 말에 참가자들은 깊이 공감했다.

첫 단계 '마음 굴리기'에서는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참나와 마주했다. 혜벽 스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참가자들의 마음을 고요히 이끌었다. 이어진 '마음 펼치기' 단계에서는 두 가지 활동이 진행됐다.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에 마련된 '마음굴림' 전용 페이지에서 마음에 닿은 문구를 골라 댓글로 남기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로, 마음을 굴린 뒤 내면의 근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는 시간이었다.

부스 밖 벽면에는 참가자들이 쓴 편지와 소감이 빼곡히 걸렸다. "불안함", "항상 웃고 싶은 마음", "아들의 평안한 자립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 등 진솔한 고백들이 이어졌고, 그 아래에는 "나를 믿으면 불안함은 없어질 거야",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와 같은 짧지만 깊은 깨달음이 적혀 있었다. 지나던 관람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글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에는 온종일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5명 단위의 참가 신청이 끊이지 않았고, 때로는 체험 시간을 5분으로 줄여야 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안내를 맡은 한 진행자는 "목에서 쇠 냄새가 날 정도로 하루 종일 안내를 했지만, 참가자들이 웃으며 돌아갈 때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의 소감도 다양했다. '근본에 연결하기'를 선택한 20대 취업준비생은 "번아웃이 올 때 근본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방전된 배터리가 충전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감정 되돌려놓기'를 고른 또 다른 참가자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본 문구가 평소 생각과 같아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혜벽 스님은 "'주인공'을 부르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수행 방법"이라며 "막막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춰 주인공을 불러 보면 나 중심에서 전체 중심으로 전환돼 자유로워진다"고 강조했다.

'초심이' 독자와 만나다

현대불교, SNS·유튜브 등 홍보
인스타 캐릭터 '초심이'에 환호
진우 스님 "대중과 소통" 격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 가운데)이 8월 7일 현대불교신문 부스를 찾아 격려했다. 본지 발행인 혜도 스님(사진 오른쪽)과 한명우 대표이사(사진 왼쪽)가 부스를 안내하는 모습.

현대불교신문(대표이사 한명우)은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서 독자들과 직접 소통했다. 새롭게 개설한 현대불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사찰정보 전문 채널 '사찰복덕방'을 알리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현대불교신문 부스는 인스타그램 캐릭터 '초심이'를 전면에 내세운 홍보존과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사찰복덕방' 채널 홍보 코너로 구성됐다. 특히 '초심이'는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로 관람객들에게 불교문화를 쉽고 즐겁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냈다.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초심이 키링과 스티커, 메모장, 협찬품인 스틱 침향 등을 선물로 전달했다. 아울러 신문을 배포하며 구독 후원 신청서를 함께 제공해 독자와의 접점을 확대했다,

'사찰복덕방'은 전국 사찰의 역사와 불사 소식, 행사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하는 유튜브 전문 채널이다. 부스에서는 채널 주요 영상과 콘텐츠가 상영돼 관람객들이 직접 시청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다. 한 관람객은 "영상으로 보니 사찰이 훨씬 친근하게 다가왔다"며 "구독해 두면 언제든 찾아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현장 이벤트도 뜨거웠다.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통해 즉석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코너에는 4일간 대기줄이 끊이지 않았다.

박람회 기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내빈들이 현대불교신문 부스를 찾아 관심과 격려를 전했다. 7일 개막식에 참석한 진우 스님은 부스를 직접 방문해 "현대불교신문이 대중과 가까이 소통하며 불교를 알리는 활동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명우 대표는 "이번 박람회에서 초심이와 인스타그램, 사찰복덕방 채널을 통해 독자와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로 불교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불교신문은 박람회에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며 독자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섰다.

'선명상 체험존' 마음을 비우다



미타선원 행복선명상이 운영한 '10분 명상' 부스.

'선명상 체험존'에서 MZ세대에 맞춘 재미있고 다양한 방식의 선명상 프로그램이 선보여 참가자들에게 깊은 울림과 힐링을 전했다.

미타선원(선원장 하림 스님) 행복선명상이 운영한 '10분 명상' 부스에서는 참가자들이 스트레스 진단지를 작성한 뒤 1:1 상담을 거쳐 호흡 관찰, 소리 명상(싱잉볼), 수식관 등 다양한 명상을 체험했다.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의 '싱잉볼 치유의 소리' 부스도 주목받았다. 싱잉볼 안에 올라서 싱잉볼의 깊고 맑은 진동을 느낀 참가자들은 "소리만으로도 몸이 편안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유연선원(주지 희상 스님)은 '움직이는 사찰'과 협업해 명상과 미술 체험, 사경·사불, 굿즈 제작 등을 선보이며 불교를 친근하게 소개했다. 정토불교대학의 친환경 제품 만들기, 마하위하라 사찰의 차명상, 1분 불교 명상, 피럿 눌 의식 등도 선보였다.

이숙희(56) 씨는 "명상으로 머리를 쉬고 비우는 방법을 알게 됐다"고 말했고, 김미진(44) 씨는 "호흡과 소리, 울림 덕분에 마음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찰음식, 맛으로 수행을 전하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이 참가자들과 함께 과일 찹쌀떡을 만들고 있다.

'사찰음식전'은 '맛'으로 불교를 배우고 '체험'으로 수행을 느끼게 하는 문화의 장으로 펼쳐졌다.

범어사, 황련사, 혜원정사, 홍법사 등 부산·경남 지역의 사찰음식 대표 사찰들이 참여해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였다.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수행자의 마음으로 만든 사찰음식이 선보였고, 발우공양 시연도 이어졌다.

범어사 사찰음식 부스에서는 주지 정오 스님이 직접 과일 찹쌀떡 만들기를 진행해 하루 100명 이상이 체험해 참가했다. 정오 스님은 "음식을 만드는 손길 하나하나가 수행"이라며 "만드는 순간과 먹는 순간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했다.

황련사는 된장을 베이스로 약용식물 황련 추출물을 넣은 '황련카레'를 준비해 항산화·항암 효과와 깊은 맛을 동시에 만족시켰다.

이 밖에도 나물, 연근, 두부 요리 등 다양한 사찰음식을 맛보고 발우공양 시연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김미영(48) 씨는 "직접 만들고 맛보니 담백함과 깊은 맛이 오래 남는다"고 소감을 밝혔고, 이수현(35) 씨는 "재료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말했다.

지구 살리는 업사이클링 '수리보살'



부산불교환경연대는 업사이클링 실천 캠페인 '수리보살'을 진행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는 업사이클링 실천 캠페인 '수리보살'로 시민과 불자들의 발길을 모았다. '수리보살'은 고장난 것을 고치는 '수리'와 폐자원을 새롭게 살려 내는 업사이클링을 실천하는 '보살'을 합친 말로, 현수막을 가방으로, 신문지를 봉투로 되살리는 활동을 통해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알렸다.

또 황령산 케이블카 설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환경 현안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행동을 촉구하는 장이 되기도 했다. '우리가 살리면, 우리를 살린다'는 슬로건 아래 환경 사진과 자료를 전시하고, '환경 룰렛' 이벤트를 통해 현수막 재활용 에코백, 채식용품 등 친환경 경품을 나눴다. 관람객들은 낙동강 하구 철새 서식지 보호 서명운동에도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신문 봉투가 이렇게 튼튼할 줄 몰랐다"며 놀랐고, 어르신들은 "생활 속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겠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부산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목종·정찬 스님과 원경 스님, 장유정 사단법인 미소원 이사장, 김도연 사무국장 등 환경연대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결제, 마음 장벽 화두 일념으로 부수는 과정”

을사년 하안거 해제 법회 봉행
전국 92개 선원서 1790명 정진
조계총림 등은 9월 6일에 해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유재상 충청지사장 · 이동격 강원지사장



사진은 시계 방향으로 영축총림 통도사, 해인총림 해인사, 금정총림 범어사, 덕숭총림 수덕사의 을사년 하안거 해제법회 모습.

불기 2569년 을사년 하안거 해제일인 8월 8일(윤 6월 15일), 전국 총림과 선원이 해제 법회를 봉행하고 한철 수행을 회향했다.

전국선원수좌회가 발표한 〈을사년 하안거 선사방함록(禪社芳啣錄)〉에 따르면 이번 하안거에는 전국 92개 선원(총림 선원 6곳, 비구 선원 59곳, 비구니 선원 27곳)에서 총림 선원 222명, 비구 선원 1046명, 비구니 선원 522명 등 총 1790명 대중이 정진에 동참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8일 설법전에서 하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올해는 산불과 수해, 폭염 등 재해가 많았지만 결제 대중의 정진력과 법력으로 무사히 해제를 맞았다”고 치하하고 “결제는 은산철벽처럼 가로막힌 마음의 장벽을 화두 일념으로 부수는 과정이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둡고 어리석지만, 깨쳤을 때는 밝고 지혜롭다. 하루를 깨달음 속에 사는 것이 백 년을 사는 것보다 귀하다”고 중단 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8일 대웅전에서 하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해인총림 방장 대원 대종사는 “오늘 해제라는 생각을 버리고, 종전에 다하지 못한 미흡한 점을 다시 용맹심을 내 정진해야 자신의 본분사인 화두를 타파할 수 있다”고 법문했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해제를 하루 앞둔 7일 대웅전에서 하안거 포살 및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방장 우송 달하 대종사와 주지 도신 스님, 선덕 지운 스님, 조계종 호계원장 정묵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을 비롯해 교구 대중과 수행 대중이 참석했다. 우송 대종사는 법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존재가 허공의 피를 주는 심장”이라며 화두 수행의 핵심은 ‘이름 없는 그 이’에 대한 철저한 의지임을 강조했다. 이어 “세상과 마음을 바꿀 힘은 각자의 심장에 있으며, 숨 쉬고 살아 있는 모든 존재가 서로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허공의 작용”이라고 법문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도 7일 보제루에서 하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방장 정여 스님을 비롯해 선원·율원·강원·신도 선방 등 각 도량의 수행 대중과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정여 스님은 법어에서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정진한 대중을 격려하고 “무명과 실상은 본래 둘이 아니며,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망상과 진리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설했다. 이어 “참된 도인은 망상을 일부러 끊으려 하지 않고, 진리를 따로 구하지 않는다. 머물고 행하는 일상이 곧 도(道)이고 수행”이라며 “본분사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해제 후에도 자나 깨나 정진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신흥사(주지 지혜 스님)는 8일 백담사 검인당에서 하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백담사 기본선원 조실 영진 스님은 “정진의 원력으로 좌선에서 행선으로 전환하더라도 화두를 끝까지 놓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8일 적광전에서 하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주지 정념 스님은 법문에서 “뜨거운 열기로 모두가 힘든 지금, 한 철 동안 정진한 수행의 힘으로 청량한 바람을 안고 청풍(淸風)을 일으켜 세상을 환희롭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달로 6월 10일(음력 5월 15일)에 결제에 든 조계총림 송광사를 비롯한 선원들은 오는 9월 6일(음력 7월 15일)에 하안거 정진을 회향한다.

통도사, 가사불사 회향…“사부대중 원력으로 법맥 이어”

6월 25일부터 49일간 제작 · 봉안
도편수 명천 스님 등에 감사패


통도사가 8월 12일 설법전에서 봉행한 ‘가사불사 회향식’에서 스님들이 가사를 정대하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8월 12일 경내 설법전에서 ‘가사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번 가사불사는 지난 6월 25일부터 49일간 영산전을 가사당으로 운영하며, 가사를 전통 방식으로 제작, 봉안하는 인연의 장으로 마련됐다.

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부처님 진신사리와 함께 가사를 봉안한 도량으로, 가사의 법맥과 의미를 대중과 함께 잇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가사는 수행자의 상징이자 불법을 전하는 표징으로, 매 불사마다 신도와 스님이 한마음으로 제작에 동참하며 그 공덕을 회향해 왔다.

이날 회향식은 점안의식 이후 가사 정대 및 공양의식이 이어졌다. 가사를 전달한 학인스님들이 무릎을 꿇고 가사를 머리 위로 받들어 올리자, 마주선 종정 성파 대종사와 주지 현덕 스님 등 대중 스님들이 합장으로 예를 표하며 가사정대 의식이 엄숙히 진행됐다. 이어 가사를 갈아입은 스님들이 대중을 향해 앉자, 법당에 모인 불자들이 일제히 삼배를 올렸다.

회향식은 △개회 △삼귀의 △가사불사 공로자 감사패 수여 △주지 스님 인사말 △공지사항 △사홍서원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통도사는 이번 불사에 기여한 도편수 명천 스님, 편수 금강수·길연심 보살을 비롯한 봉사자 9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현덕 스님은 인사말에서 “신라시대부터 통도사는 스님을 배출하는 중심 도량이자 가사의 인연을 대중과 함께 이어온 도량”이라며 “이번 불사는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정성과 원력으로 성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차정연 회장, 한국해양문학상 대상 수상

시 ‘닻, 타법’ 외 55편으로



차정연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장〈사진〉이 제29회 한국해양문학상 시상식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8월 8일 부산예술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해양문학제’의 주요 행사로, 제30회 한국해양문학 심포지엄, 해양문학 특강과 함께 진행됐다.

수상작 ‘닻, 타법’ 외 55편은 차 회장이 낙동강 하구와 바다가 어우러진 고향에서 자라며 체득한 해양의 기억과 삶의 항해를 시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차 회장은 2003년 수필로, 2020년 시로 등단했으며 대통령 표창, 영축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시집 〈어머니의 돌탑〉, 〈길의 여백〉, 〈낙동강 그 맑은〉, 수필집 〈희망〉, 〈새벽길〉 등을 펴냈으며, 2004년 부산불교문인협회에 입회해 부회장을 역임한 뒤 현재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차 회장은 수상 소감에서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고향에서 자라며 자연의 풍요와 삶의 결핍이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해양문학을 만나 그 두 세계를 품는 법을 배웠고, 이번 수상이 제 문학 인생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두근두근 어린이 캠프’ 개최

8월 13일~15일, 108명 참가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내에서 ‘두근두근 범어사 어린이 캠프’를 열었다.〈사진〉

‘맑은 마음, 환한 웃음, 범어사에서 자라는 인연’을 주제로 진행된 캠프에는 초등학생 108명이 참가해 사찰예절 교육, 팀별 만다라 만들기, 연꽃 키링 제작, 싱잉볼 명상, 범어사 탐방, 물놀이, 촛불 명상, 숲속 걷기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대방 스님은 “이 시간은 아이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마음을 닦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이라며 “늘 감사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삼광사, 방학 맞아 ‘어린이여름문화캠프’

8월 9~10일, 70명 참가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용암 스님)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9~10일 어린이 7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여름문화캠프’를 개최했다.〈사진〉

첫날인 9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폐기물 재활용 업사이클링 공예아트 △전통 떡을 활용한 케이크 만들기 등 문화체험과 발우공양, 108배 수행을 체험했다.

둘째 날에는 사찰예절 교육과 염주 만들기, 불교교리퀴즈,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이어졌다. 이어 시원한 물놀이로 무더위를 식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전체 기념촬영을 끝으로 캠프를 회향했다.

삼광사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인성교육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

불교시민사회, '오구라 컬렉션' 환수 나선다

문화유산회복재단, 8월 12일 환수위 발족

오구라, 일제강점기 당시
불상 등 1100여 점 반출
"20년 내 전부 환수 목표"
1만인 동참 등 저변 확대

유재상 충청지사장



문화유산회복재단은 8월 12일 아산 환수문화유산기념박물관에서 불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오구라 컬렉션 환수위원회'를 발족했다.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오구라 컬렉션'을 환수하기 위해 불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이사장 이상근)은 8월 12일 아산 환수문화유산기념박물관에서 '오구라 컬렉션 환수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오구라 컬렉션'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불법 반출한 문화유산이다. 그는 불교 유물, 서화, 복식, 고대 유물 등 한반도의 중요 문화유산을 닥치는 대로 수집해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그 수량만 1100여 점에 달한다. '오구라 컬렉션'은 일본 도쿄박물관에 수장돼 있으며 이 중 39점은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됐을 정도로 수준이 높다.

환수위원회는 이날 발족식에서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을 상임대표로, 김경임 전 주튀니지 대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서산 부석사 주지 원우 스님을 비롯해 문영숙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한수 전 배재대 산학부총장, 강경숙·박수현·문진석·정춘생 국회의원, 박영순 전 국회의원, 안정헌·김민수·김연·이공휘 충남도의원 등 각계 인사가 공동대표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1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상근 상임대표는 "오구라 컬렉션은 한국사의 정수를 담은 불법 반출 문화유산이다. 부여 금강사지 출토 금동약사불 소송을 시작으로 1030점 전부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대표들의 결의도 이어졌다. 문영숙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최재형 선생과 러시아 항일운동사를 소개하며 "해외 유출 문화재 환수 운동은 현재의 독립운동"이라고 말했다.

정춘생 의원은 해외 문화유산 환수 법률 제정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고, 강경숙 의원은 "문화유산 환수는 우리의 정신과 뿌리를 되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장헌 충남도의회 의원은 "지역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한수 전 배재대 산학부총장은 "교육자로서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무관심을 사죄한다. 시민과 함께 법률·외교·교육을 아우르는 환수 모델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환수위원회는 향후 △시민 참여 확대('1만인 동참') △국내외 소장처와의 협의 채널 발굴 △법률·정책 개선 제안 △학교·지자체와 연계한 교육·전시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수문화유산기념박물관(관장 남종석)은 광복 80주년과 한일협정 60년을 맞아 9월 12일까지 '광복 80년, 한일협정 60년, 미래세대의 온전한 문화주권 완성을 위한 광복 100년의 준비'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지친 교사들 마음을 어루만지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교사직무연수 성료
8월 4~11일 30시간 교육
마음 치유 · 성찰의 장 마련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은 8월 4일부터 11일까지 '괜찮지 않아도 돼!'를 주제로 교사직무연수를 개최했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은 8월 4일부터 11일까지 '괜찮지 않아도 돼!'를 주제로 교사직무연수를 성료했다. 교육은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에 이어 11일에 4시간 등 총 30시간 동안 진행됐다.

올해로 3회를 맞은 교사직무연수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교사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고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첫날에는 △고정관념 내려놓기 △괜찮지 않아도 돼! △자유로운 나 찾기 △마음을 여는 대화 등이 진행됐다. 저녁에는 죽음과 삶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고백' 프로그램이 열려 참가자들이 진솔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했다.

둘째 날에는 △마음의 활용과 원리 △무지의 자각 △'나'로부터 시작하는 세상 등 강의와 실습이 진행됐다. 이어진 촛불명상에서는 마음속 본래 밝음을 확인하고 그 자리를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 날에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변화하는 나 찾기 등을 통해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혔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실천 나누기' 시간이 마련돼 참가자들이 연수에서 얻은 깨달음과 앞으로의 실천 계획을 공유하며 연수를 마무리했다.

한 참가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달려오느라 제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번 연수에서 저를 위로하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교사는 "마음이 힘들 때 내려놓고 중심을 잡는 방법을 배워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실천해 보고 싶다"고 전했다.

지원장 혜연 스님은 "교사가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학생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교사들이 재충전하고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은 앞으로도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교사직무연수를 개최할 방침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백양사 '제4회 백양아이 명상캠프' 성료

8월 9~10일, 50여 명 참석
오감으로 배우는 불교와 명상
싱잉볼 · 연꽃차 체험 등 다채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8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제4회 백양아이 여름 명상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지도법사 진선·동호·능견·형진 스님 등 5명의 스님과 지도교사 15명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린이 47명이 함께했다.

9일 백양사 교육관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어린이들은 사찰 예절과 캠프 예절을 배우며 마음가짐을 다졌다. 올해 캠프는 '우리 지금 당장 만나'를 주제로 △오감명상 △백양 워터피아 △레크리에이션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마음 나누기 △어린이 수계식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오감명상'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명상 체험으로, 싱잉볼 명상과 연꽃차 다도명상으로 진행됐다. 아이들은 명상 호흡을 배우고 연꽃차를 보고 향기를 맡고 맛보며 오감으로 느꼈다. 이어 티베트 전통 수행 도구인 싱잉볼을 이용해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은 물론 몸과 마음으로 함께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주지 무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어린이 여러분들을 보니 스님의 마음이 저절로 행복해진다"며 "다투지 말고, 고운 말을 쓰며, 어른과 스승의 말씀을 잘 듣고, 맑고 밝은 얼굴로 회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지도법사 능견 스님(동국대 유아교육과 교수)은 "최근 아이들이 과도한 학습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번 명상캠프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 건강 증진을 목표로 자기 조절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백양사 경내에는 수영장이 설치돼 여름 무더위를 식히는 물놀이도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고종 세종충남종무원, '예수재' 봉행

8월 9일, 홍주문화체육관서
세계평화와 국태민안 기원
상진 스님 "평화 씨앗 심자"



태고종 세종·충남종무원(종무원장 원철 스님, 홍성 관음사 주지)이 8월 9일 홍성군 홍주문화체육센터 특별대도량에서 '세종·충남 예술제'로 '예수시왕생칠재'를 봉행했다.

세계평화와 국태민안, 안과태평의 선업 성취를 발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원로의원 원철·동우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법연 스님을 비롯해 세종·충남 종무원 회원 사찰 스님들과 이용록 홍성군수, 강승규 국회의원, 지역 단체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보길 스님의 집전과 법인 스님의 사회로 시작된 법요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봉행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운의식은 영산재 이수자인 미건 스님의 집전으로 영산재 회원들이 함께 봉행했다.

상진 스님은 격려사에서 "예술제는 불교문화와 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져 대중의 마음을 정화하고 평화와 화합의 씨앗을 심는 법석"이라며 "참여한 모든 분의 원력이 모여 사회와 세계에 밝은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충남종무원장 원철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이번 법석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중생 구제의 서원을 다지는 자리"라며 "세종·충남 불교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봉행된 예수시왕생칠재는 돌아가신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전통 불교의식으로, 불자와 시민들이 동참해 가족과 조상, 유주무주의 고혼을 천도하고, 나아가 국태민안과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발원문에는 모든 생명이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서원이 담겼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울산 신흥사, 생전예수재 회향법회

8월 8일, 대웅전서 봉행



울산 신흥사(주지 인경 스님)는 8월 8일 대웅전에서 '백중 생전예수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7월 말 입재한 생전예수재의 대미를 장식한 이날 법회는 △사자단 권공(관욕의식) △관욕단 살풀이(박옥란 명인) △지장본원경 제56품 독송 △약례권공 △상단 축원 △고사단·마구단 동시권공 △관음시식(창혼권반게) △영가단 극락무 △관음시식(장엄염불) △상·중·하단 봉송 및 소전 의식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관욕 의식에서 인경 스님은 "관욕은 영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스스로가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 수행"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 전에 올리는 모든 공덕이 영가와 대중에게 두루 회향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정법사, 백중 가사불사·승보공양

8월 9일, 1200여 명 운집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백중기도 기간인 8월 9일 만불보전에서 통도사 율원 스님들을 초청해 '가사불사·승보공양' 법회를 봉행했다.

가사공양에서는 사중 스님 7명과 영축불교대학 강사 영산 스님(창원 안국사)을 포함한 총 23명의 스님께 공양했다.

정법사는 이날 통도사 율원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보시했으며, 백중 회향 후 산청 호우 피해 지원금 1000만원과 백미 3000kg을 회향할 예정이다.

광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생전예수재를 통해 살아생전 업장을 참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남해 용문사, 어린이 여름템플스테이

8월 2·9일, 30여 명 참여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 스님)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여름템플스테이'를 2회에 걸쳐 개최했다. 8월 2일 열린 1차 프로그램에는 10여 명, 9일 진행된 2차 프로그램에는 2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주지 승원 스님은 "참가 인원이 몇 명이든 부처님과 불교, 그리고 절과 인연을 맺어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해마다 여름 어린이 템플스테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가 어린이들은 지도법사 법명 스님과 지도교사의 인솔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 동안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지장정사, 지역에 백미 나눔

8월 11일, 남구청 등에 전달



울산 지장정사(주지 현우 스님)는 8월 11일 지역사회에 백미 210포를 전달하는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자비나눔은 생전예수재 동참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연해 이뤄진 것으로, 울산 남구청과 남부경찰서, 지역 복지시설, 미혼모·미혼부 가정 등에 총 20kg 백미 210포가 전달됐다. 남구청은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백미 100포를 저소득 가정 등에 배포하고, 남부경찰서는 백미 50포를 피해자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지 현우 스님은 "생전예수재의 공덕은 나와 남, 살아 있는 이와 인연 맺은 모든 존재에게 회향되는 것"이라며 "신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백미가 이웃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어려운 가정의 마음을 위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 지역민과 '팥빙수 축제'

8월 13일 대인동 주민 400명에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8월 13일 광주 동구 들랑날랑커뮤니센터에서 2025 빛고을관등회 공동체 프로그램인 '대인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원달콤 팥빙수 축제'를 열었다.

동구청과 자비신행회가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 스님과 신도들은 대인동 쪽방촌 어르신과 시장 상인, 주민 등 400여 명에게 여름철 별미인 팥빙수를 직접 전달하며 시원한 여름나기를 기원했다.

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인사말에서 "무더운 여름, 일상에 지친 지역 주민들에게 시원한 팥빙수를 선물하게 되어 기쁘다"며 "건강하고 즐겁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진관사 태극기’ 원본, 덕수궁서 만난다

‘빛을 담은 항일유산’ 특별전
덕수궁 돈덕전서 10월 12일까지
‘환수’ 안중근 유묵 등 110점 전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0월 12일까지 덕수궁 돈덕전에서 열리는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에서 전시되는 ‘서울 진관사 태극기’를 관람객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진관사 태극기’ 원본을 비롯한 항일유산 110점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 덕수궁에서 열린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덕수궁 돈덕전에서 근대기 항일 독립유산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조명하는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개항기부터 대한제국·일제강점기·광복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를 담은 항일 독립유산이 품고 있는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자주구국의 유산 △민중함성의 유산 △민족수호의 유산 △조국광복의 유산 △환국의 유산의 5부로 구성된다.

전시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착용한 태극기 배지의 원본이자,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의 태극기인 보물 ‘서울 진관사 태극기’를 비롯해 110여 점의 항일유산이 대중에게 선보인다.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26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의 부속건물인 칠성각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불단(佛壇) 안쪽 벽체에서 발견됐다. 당시 태극기에 보자기처럼 싸인 독립신문류 19점이 함께 발견됐다.

진관사 태극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먹으로 덧칠해 항일 의지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왼쪽 윗부분 끝자락이 불에 타 손상됐고 여러 곳에 구멍이 뚫린 흔적이 있어 3·1만세운동 당시 혹은 그 이후 현장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함께 2024년 7월 일본에서 환수한 의병장들의 결사항전 기록으로, 의병을 체포하고 서신을 강탈했던 일제의 의병 탄압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말 의병 관련 문서’를 비롯해 △지난 4월 개인소장자가 경매를 통해 환수해 온 안중근 의사의 유묵 ‘녹죽(綠竹)’ △대한제국 주미공사 이범진의 외교일기인 국가등록문화유산 ‘미사일록’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 편찬한 역사서인 ‘한일관계사료집’ 등이 처음으로 국민에 공개된다.

앞서 지난 8월 5일 국가유산청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차주영 배우와 함께 특별전 전시 유물을 소개하는 ‘빛을 담은 항일유산’ 영상을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해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 한국어 해설자로 참여한 차주영 배우는 이번 특별전 전시 유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음성해설(오디오 도슨트)로도 참여해 국내외의 관람객들이 항일유산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전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이번 특별전을 전국 곳곳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부산 근현대역사관, 광주 역사민속박물관, 울산박물관, 목포근대역사관 등 총 4개의 지역 박물관에도 전시 부스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일제의 강압과 억압 속에서도 독립을 위해 싸운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항일유산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역사이자 정신이며 우리 국민의 정체성으로 미래세대에 계승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전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광복의 참된 의미와 항일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동국대서 펼쳐지는 ‘2025 불교문화대전’

조계종 주최로 9월 9~10일 개최
주석 스님, 최태성 강사 강의 등
인문·명상·문화 프로그램 ‘다채’
동국대 취업박람회와 연계 진행



인문학 강의와 명상 등을 통해 불교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서울 동국대 일원에서 펼쳐진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공 스님)는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동국대에서 2025 불교문화대전 ‘天上天下 You Are the Only One’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교문화대전은 조계종이 주최하고 동국대·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공동 주관한다.

2025 불교문화대전은 기존의 공연·전시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국대 취업박람회와 연계해 선명상을 비롯한 불교문화콘텐츠를 매개로 청년들에게 ‘마음의 쉼’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불교문화대전은 불교 인문학 및 선명상 강연, 불교문화 체험 부스, 명상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개막식은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열리며 개막식 후에는 최태성 한국사 강사가 ‘불교 역사를 통해 보는 삶의 지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9월 10일 오후 2시에는 (재)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이 ‘당신은 소중한 존재(You Are the Only One)’를 주제로 선명상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불교문화 체험 부스는 동국대 팔정도 주변 법학관 일대에서 운영되며 △선명상 체험 △지화 연꽃 만들기 △출가 상담 △사찰음식·템플스테이 홍보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또 팔정도 광장에서는 점심시간을 활용한 명상 음악회가 열려, 국악·재즈·클래식·명상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휴식과 위로를 선사할 예정이다.

조계종 문화부는 “2025 불교문화대전이 많은 분들에게 불교문화를 통한 마음의 쉼과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불교문화가 다양한 세대와 소통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2020년 시작된 불교문화대전은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정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조계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불교문화 행사를 선보여 왔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달라이라마, 라다크 조캉사원 중창 격려

8월 3일 재건 부지 기공식서
직접 초석 놓고 축원·격려


라다크 조캉사원에 초석을 놓는 달라이라마. 사진 출처=달라이라마 사무국

북인도 라다크를 방문 중인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라다크 불교의 중심지인 ‘라다크 조캉사원’의 중창불사를 직접 격려했다. 지난 8월 4일 티베트 관련 뉴스를 전하는 ‘파율 닷컴’은 달라이라마의 방문을 특별 보도했다.

라다크 수도 레의 중앙시장 근처에 소재한 조캉사원은 1957년 라다크 왕국 왕자이자 전 주몽골 인도 대사였던 바쿨라 린포체가 창건했다. 이 사원은 중국의 티베트 점령으로 라다크의 불교신자들의 티베트 순례가 차단되자 티베트 불교에서 가장 성지로 꼽히는 티베트 라싸의 조캉사원을 본떠 건립됐다.

특히 1962년 라싸에서 조성해 이운한 석가모니 불상을 본존불로 봉안하면서 이후 라다크에서 가장 중요한 사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어진 이상 기후로 인해 법당과 요사채 등에 붕괴 위험이 생기면서 라다크 불교협회는 사원의 중창불사를 결의, 법당을 새롭게 건설하게 됐다.

8월 3일 오전 재건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 참석한 달라이라마는 직접 초석을 놓았으며 전통적인 기도의식 등으로 재건될 장소와 참여자들을 축원했다. 달라이라마는 “새롭게 중창되는 이 사원은 단순한 예배 장소나 순례지로 재건될 뿐만 아니라 불교철학, 논리, 그리고 토론을 위한 ‘학습의 중심지’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공식 후 달라이라마는 조캉사원이 재건되는 동안 사용될 불교센터를 방문했으며, 한동안 라다크에 주재할 것으로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대법원, 마하보디사원 청원 심사

보드가야 사원법 헌법 유효성 다툴 전망

성도성지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오랜 갈등에 희망의 빛이 비췄다. 지난 8월 7일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 ‘타임즈 오브 인디아’ 등의 현지 언론들은 인도 불교계의 오랜 청원에 대해 대법원이 심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마하보디 사원은 약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장소로 보리수나무와 마하보디 대탑 등의 성지들이 모인 사원이다. 그러나 이 사원은 1949년 제정된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 운영법에 따라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인도 불교계는 오랫동안 이 법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폐지 및 개정을 요청해 왔고 올해 초부터는 청원과 함께 단식 투쟁과 연좌시위 등을 이어가며 강력하게 의사를 표현했다.

인도 대법원은 6월 30일 이와 유사한 별도의 청원심리를 기각하고 청원인에게 고등법원에 다시 제소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 최근 청원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대법원의 심리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인도 대법원은 8월 4일 인도 중앙행정부와 관련당국에 통지문을 발송, 1949년 보드가야 사원법의 헌법적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한 청원에 대한 당국의 답변을 요구했다.

대법원 결정에 인도 불교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시킴주 종교부 장관 소남 라마는 “전세계에서 찾아오는 불교도들에게, 마하보디 사원의 진정한 대표권이 불교에게 있음을 보여 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네팔 불교 성지순례 8박10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80만원부터~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관세음보살의 상주처
보타낙가산 +미륵도량 설두산 +상해 4박5일
▶일 정 : 인천-상해-보타낙가산-설두산-상해-인천
▶동참금 : 문의
중국 4대불산
-구화산+항주 4박5일
-오대산+북경 4박5일
-아미산+낙산대불 4박5일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중국 실크로드 6박7일
▶일 정 : 인천-서안-천수-무안-돈황-투루판-우루무치-서안-인천
★ 체크포인트 : 국내선(2회), 고속열차(1회) 포함★
▶동참금 : 문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교회 가며 듣는다”…‘스님 버튜버’ 방송 ‘인기만점’

불법 스님 첫 일요법회 방송… 1200명 시청

천수경 · 반야심경 봉독 등 ‘여법’
‘윤회 · 업’ 주제로 불교교리 전해
두 번째 방송 1600명 동시접속
시청자 질문에 실시간 답변 · 소통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한민국 치직산 의문사 청정수월도량에서 금월 금일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하며 발원하는 각 처에 거주하는 오늘 모인 범불비들이 이 인연 공덕으로 제불보살님의 오묘한 가피력을 받아서 일체의 재앙과 장애 사라지고 가정이 모두 화목하며….”

‘치직산 의문사(疑問寺)’의 법회를 주관한 법사 ‘불법(佛法) 스님’의 축원 중 일부다. ‘치직산 의문사’는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에서 한국 최초 ‘현역 스님 버튜버’인 불법 스님이 주석하는 가상의 사찰이다. 축원 속 ‘범불비’는 불법 스님 채널의 팬네임.

‘스님 버튜버’ 불법 스님의 첫 일요 정기법회가 8월 10일 오전 10시에 봉행됐다. 일요일 아침임에도 800~900명대로 시작한 방송은 최대 동시 접속 인원 1260여 명을 기록하고, 법회 방송이 끝날 때까지도 1100명대를 유지했다.

그들이 소통 · 응원하는 법

이날 일요정기법회는 〈천수경〉 봉독·거불·유치·청사·예참·정근·축원 등 불공의식부터 〈반야심경〉 봉독, 법문, 사홍서원까지 여법하게 봉행됐다.

첫 정기법회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스님과 시청자들의 소통과 응원 방식이었다. 〈천수경〉부터 〈반야심경〉까지 염불과 독경이 이어지자 참석 대중들은 기도, 절 모습과 비슷한 이모티콘 등을 찾아 함께 호흡하며 응원했다.

불법 스님도 법문 등을 위한 PPT를 제작해 불교 역사, 교리 등을 전했다.

불교 교리부터 인도 고대사까지

이날 법회에서 불법 스님은 윤회와 업을 주제로 법문했다. 첫 정기법회의 법문인 만큼 인도의 사회 경제적 상황을 비롯해 브라만교와 육사외도에 대한 주요 교리와 인물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윤회와 업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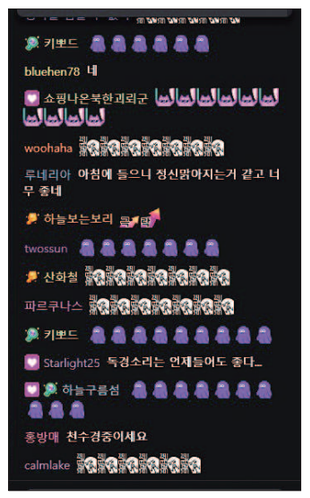
시청자들의 질문에도 성실히 답했다. ‘기독교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데 불교는 누가 세상을 창조했는가’라는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 답하지 않았던 ‘14무기(十四無記)’와 ‘독화살의 비유’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불법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태어난 것이 독화살을 맞은 것과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당장 화살을 뽑아 해독제를 바르고 치료해야 하는데, 형이상학적 질문은 화살을 누가 쐈는지 화살촉의 재질이 무엇인지 등을 알려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부처님은 이처럼 비유를 들어 제자들과 신도들에게 법을 설하셨다”고 답했다.

시청자 1200여 명의 호응은 뜨거웠다. “나 이거 왜 계속 듣고 있냐”, “진짜 법회잖아”, “일요일 아침부터 경건하다”, “엄마랑 같이 듣는데 엄청 유익하고 재미있다고 합니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심지어는 “교회가면서 염불과 법회를 듣는다”는 시청자도 있었다.



8월 10일 진행된 스님 버튜버 불법 스님의 첫 일요정기법회 방송. 불공을 진행 중이다.



불법 스님의 염불과 독경에 맞춰 올라온 이모티콘들.

두 번째 방송 1600명 동접 ‘안착화’

앞서 8월 7일 진행된 버튜버 불법 스님의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은 최대 동접 인원이 1600여 명에 달했으며, 평균 1300명이 마지막까지 스님의 방송을 시청했다. 두 번째 방송 후에는 1만6000명이었던 플랫폼 팔로워가 1만7000명으로 늘어나며 안착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7일 방송은 108개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는 한 달 전 데뷔 방송에서 받았던 질문 중 소개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정리한 것으로 스님 개인사부터 불교 교리, 신행 방법들을 묻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특히 불법 스님은 방송을 하는 목적이 ‘포교’임을 분명히 했다. 스님은 “일상에서 스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지만, 방송을 하면 쉽게 만날 수 있다. 스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친근감을 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을 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여법하고 스님다우신 스님들의 콘텐츠들이 많고,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불교를 배울 수 있다. 저는 음지에서 여러분들을 양지로 밀어 올리는 역할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9일 네이버 치지직에서 파일럿 방송으로 버튜버로 데뷔한 불법 스님은 당일 최대 동시 접속 4000명을 기록하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불법 스님은 앞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정기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평일에는 저스트 법담, 염불, 게임 방송 등의 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이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⑥ 일체유심조

지금 여기, 마음의 작용

一 切 唯 心 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불교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말은, 다양한 측면에서 오남용이 심하다. 신이 천지를 창조했듯 마음이 눈에 보이는 만물을 만들었다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또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굳은 의지로 극복하는 논리로 사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차별과 불평등한 사태도 해석하기에 따라 긍정적일 수 있다며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불교의 마음 사상을 대표하는 이 구절은 〈화엄경〉 ‘야마궁궁게찬품’에 있다.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만약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모든 존재가 곧 마음의 조작임을 통찰하라.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마음의 조작이라는 요지다. 60권본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 대신 ‘심조제여래(心造諸如來)’라고 말하고 있다. ‘마음이 모든 여래를 출현시킨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 글자는 바로 ‘조(造)’이다. 직역하면 ‘만든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각자 편의에 따라 사용한다. 창조(create) 혹은 조작(make)이 아니다. 일체유심조에서 ‘조’의 뜻에 가까운 용어는 ‘즉(卽)’이고 ‘시(是)’라 할 수 있다. 마음의 모습이 ‘곧’ 부처이고, 마음의 작용이 ‘곧’ 부처라는 뜻이다. 마음이라는 고정불변의 실체적 주체에서 부처가 창조되거나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마음 모습과 그 마음 씀이 ‘곧’ 부처라고 한다. 쉽게 풀이하면 욕탐(欲貪)과 무지와 투쟁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곧바로 아귀 중생이고 아수라 중생이 된다는 뜻이다. 일체유심조는 행위와 결과의 업보 원리를 마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마음 모습과 마음 작용이 자신의 존재를 규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대상도 마음의 투사와 반영으로 규정된다. 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보인다. 대상은 나의 의도와 욕구가 반영된 대상이다. 푸른 산을 경건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개발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결코 동일한 산이 아니다.

독일 철학자 에드문트 후설(1859~1938)도 현상학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의식 속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한다. 어떤 지향성에 따라 사물이 규정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늘 나를 점검해 보자. 지금 여기, 나의 마음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여기, 나는 어떻게 보고 행위하고 있는가?

〈화순 불암사 주지〉

만해사상 실천 논하는 문학축전 열린다

만해사상실천연합 창립10주년
29일 심우장 만해평화문학축전

만해 스님의 사상과 유훈의 실천 방법을 논하기 위한 문학축전이 열린다.

사단법인 만해사상실천연합(이사장 홍파 스님)은 8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심우장에서 ‘제10회 심우장 만해평화문학축전’을 개최한다.

만해사상실천연합 창립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축전은 ‘만해사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 시낭송, 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행사는 총 4부로 진행된다. 제1부 만해 탄신 146주년 다례재 및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는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이 법문을 설하며, 세계평화와 인권을 위한 메시지와 남북한 국민에게 보내는 평화 메시지가 발표된다.

제2부에서는 조계종 어산어장 동휘 스님의 범패 ‘도량게 작법’이 설행되며 만해 스님의 생애를 다룬 뮤지컬 ‘심우(尋牛)’ 공연도 진행된다.

제3부 만해사상 심포지엄에서는 ‘만해사상,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만해의 평화사상과 그 계승을 위해(허우성 경희대 명예교수) △만해 한용운의 독립정신과 민족통일: 평화통일 담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겸하여(김용섭 전북대 명예교수) △만해학의 현황과 과제(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 △심우장, 기억의 집에서 실천의 공간으로: 장소성 변화를 중심으로(김지은 성북구청 학예사) 등이 발표된다.

제4부 만해예술의 향연에서는 만해 스님의 시 낭송과 찬시 발표, 가곡 독창 등 문화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간단하고 직접적인 불교명상 안내서
통찰의 체험
현대 명상 지침서 가운데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최고의 책이다. 수십 년 전에 출간되었지만 명상을 배우는 사람에게 여전히 신선하고 살아 있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조셉 골드스타인 지음, 이재석 옮김/신국판/248쪽/값 18,000원

재가 거사가 법을 설하다!
유마경
공과 무상, 불이사상을 담고 있어 대승불교의 근간이 되면서 선불교의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유마경이 혜원 스님의 현대적 예화와 강설에 의해 새롭게 다가온다.
혜원 강설/신국판변형/양장/320쪽/값 21,000원

페미니스트는 불교도가 될 수 있는가?
젠더를 넘어서는 불교
저자는 여성과 남성 공히 젠더 정체성에 갇혀 고통받고 있으며, 젠더 정체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불교의 무아, 공성에 대한 깨달음에 있음을 보여준다.
리타 그로스 지음, 김민정 옮김/신국판/272쪽/값 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3~8/19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 행운 상징 컬러링 북	박혜원	담앤북스	6	우리 단청 화첩	선웅/김지민 외	담앤북스
2	과학이 주목하는 죽음 이후의 일들	김성구	불광출판사	7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3	그림자 속의 향기	청전	담앤북스	8	뿌리를 담은 밥상	법송	도서출판 자자
4	나는 누구인가	법산경일	백산	9	우리말로 읽는 부처님 말씀 능엄경	원조 각성	비움과소통
5	예수재의범	해사	운주사	10	붓다의 철학	이중표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붓다의 가르침:라훌라스님의 현대적 사고로 쓰인 불교해설서	월폴라 라훌라 (Walpola Rahula)	맑은소리맑은나라	6	통찰의 체험:간단하고 직접적인 불교명상 안내서	조셉 골드스타인	운주사
2	요가디피카(아행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행가/현천 역	선요가	7	중론(상)	용수/청목 석/구마라집 한역	여래
3	시골농부의 마음공부	김일문	운주사	8	한자풀이 정토삼부경(미타삼부경) 극락가는 길	김진철 편역	법화원
4	정좌수도 강의(남회근 저작선10)	남회근/신원봉	부키	9	중론:산스끄리뜨 계송의 문법 해설을 겸한(개정본)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5	무비 스님의 천수경(개정판)	무비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10	숫타니파타-붓다의 말씀	퇴현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등단 30년, 문태준 시인의 '새 국면'



풀의 탄생
문태준 시집
문학동네 / 1만2000원



꽃이 환하니 서러운 일은 잊어요
문태준 지음
마음의숲 / 1만8000원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한국 서정시의 수사(修士)'로 불리는 문태준 시인〈사진〉이 제주로 삶터와 일터를 옮기며 맞은 '새 국면'을 담은 시와 산문이 출간됐다.

1994년 등단해 올해로 시력(詩歷) 30년을 넘긴 시인의 근작 〈풀의 탄생〉은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전개되는 그의 새 국면을 엿볼 수 있는 시편들로 가득하다. 시인은 '제주 애월읍 장전리'에서의 삶을 "풀밭의 살림을 일궈 풀과 산다"는 말로 소개한다.

"풀을 뽑으러 와서/풀을 뽑지는 않고//보고 듣는/풀의 춤/풀의 말//이러하나 저러하나/넘치거나 모자라거나/수줍어하며/그러하다는/풀의 춤/풀의 말" –'풀' 중에서

〈풀의 탄생〉의 4부 구성은 사계(四季)를 담은 편지로 읽힌다. 시인은 편지에 제주에서 보고 만나고 느낀 풍광과, 이제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았다. 1부에는 흙과 벗 삼아 살아가는 시인의 오늘과 이제는 '흙 속'에 있는 지난날, 그리고 흙 위로 피어오르는 생명을 노래하는 시편을 모았다. 2부에서는 여름날의 풍경을 향수 어린 목소리로 읊고, 3부에서 시인의 가장 '처음'에 대한 그리움을, 4부에는 덧없고도 아름다운 삶의 담아냈다.

시인은 출간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홉 번째 시집이자 3년 만의 신작에 대해 "앞서 펴낸 시집보다 제주에서의 생활이 더 들어와 있는 느낌"이라며 "듬성듬성하게, 멈추고, 쉬고, 곁을 두는 그런 시가 이번 시집 속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흙과 바다가 지닌 거대한 생명 세계를 접하면서 내가 다른 생명 존재와 함께 호흡하고 흐르면서 동근(同根)으로서 공동의 살림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전했다.



제주의 삶 담은 시·산문집 출간
자연이 알려 주는 '꽉 찬 필연'
"나는 모든 생명과 연결된 존재"

시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풀'에 대해선 "좀 거창하게 말하면 풀을 통해 생명의 근원과 본래의 면목을 본다"며 "잎 나고 봉오리 맺고 꽃 피고 지는 현상에는 어떤 조건과 원인이, 말미암은 것이 대게는 있다는 '꽉 찬 필연'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한다.

문태준 시인의 산문은 그의 시만큼이나 간결하고 고요하다.

〈꽃이 환하니 서러운 일을 잊어요〉에도 제주의 사계절이 담겨 있는데, 마침 이 계절 여름에 먼저 눈길이 간다. 1부 '여름-여름 정원에 은하 같은 수국은 피어'에는 제주 마을의 한여름 정취가 가득하다. 극적인 소나기가 지나고, 베어내고 돌아서면 또 풀이 자라 있고, 작약꽃이 마당을 환히 밝히는 계절이 담담한 글 속에 전해진다.

도시에서 좀체 느낄 수 없는 이웃 간의 정도 애틋하다. 참외를 가져온 이웃에게는 산딸기 잼을 건네고, 그 참외를 나눠 먹은 옆집은 새콤한 매실을 두고 간다. 이웃 모두가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낮의 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동하고, 모나지 않게 무던하게 마음을 사용하고, 속이는 일을 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누면서 살고 있"는 이들이다.

문태준 시인의 산문을 읽는 기쁨 중 하나는, 그의 시가 어떻게 영글었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옆집 사람이 나무 의자를 만들어 화단 앞에 놓아둔 것을 보고선, 그 일을 시로 지었다.

"옆집 사람이 나무 의자를 만들어 붓꽃 화단 앞쪽에 내어놓았기에/걸음을 재촉하며 집에 돌아와/그 나무 의자를/그 모양 그대로/마음속에 떠올려/앉아 보았다//내 의자는 톱과 못을 쓰지 않고 만든 의자/내 의자는 아롱거리는 아지랑이로 만든 의자" –'우치(愚痴) 3-나무 의자를 만들다' 전문

오래된 밭을 일구고 풀을 뽑으며 꽃과 나무와 자연을 기록하는 시인은 "예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시골의 자연 속에서 살면서, 또 화단을 가꾸고,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생명 존재들과 관계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한다.

자연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간 이번 시집과 산문은 그가 쓴 '농부 일기'이자 '사유 일기'가 아닐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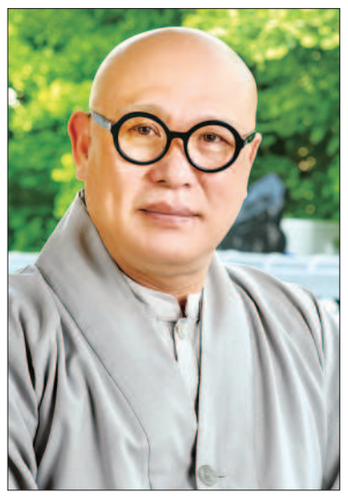
▲저자 **문태준 시인**은?

1970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다. 199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시집 〈수런거리는 뒤란〉, 〈맨발〉, 〈가재미〉, 〈그늘의 발달〉, 〈먼 곳〉,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아침은 생각한다〉와 산문집 〈느림보 마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나무가 되지요〉, 〈나는 첫 문장을 기다렸다〉 등을 펴냈다. 노작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목월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박인환상, 무산문화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제주BBS 총괄국장이다.

일상적 경험 속 비일상적 순간



응시와 가장 가까운 곳
승한 스님 시집
몰개 / 1만2000원



안과 밖, 있음과 없음, 색(色)과 공(空)의 개념을 주된 모티프로 삼아 진리와 깨달음의 세계에 천착해 온 시인 승한 스님〈사진〉이 다섯 번째 시집 〈응시와 가장 가까운 곳〉을 펴냈다.

스님은 이번 시집에서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고, 일상적 경험 속에서 비일상적인 순간을 지향한다. 이는 '내부'와 '외부'의 관계에 대한 성찰로 표현된다.

"내부가 외부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양식(糧食)과 걸음이 필요했을까 내부가 외부의 옷으로 갈아입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구름과 바람과 햇볕과 비의 날들이 필요했을까 풀이 색이 되기까지 탈색이 다시 착색이 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용서와 사랑과 채찍과 혼돈의 외경(畏敬)이 필요했을까" –'쪽' 중에서

스님은 '시인의 말'에서 "전작 '폐쇄병동' 연작시집이 나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의 내 시선은 외부의 내부로 향해 있다"며 "시가 있어 살았다. 얼마 동안 더 시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 있는 동안 쓰고 싶다. 나를 치유하는 가장 거룩한 약이므로, 충일한 행복이므로"라는 말로 시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숙생의 그 업 다 하는 그날까지, 저는, 저는 동지섣달 그 얼음 새벽, 그 얼음 목탁, 그 얼음 죽비 소리 속에 고드름으로 깃들어 살겠습니다 한 마리 눈 뜬 얼음 물고기로 깃들어 살겠습니다 얼음 만다라로 수놓여 살겠습니다" –'얼음 만다라'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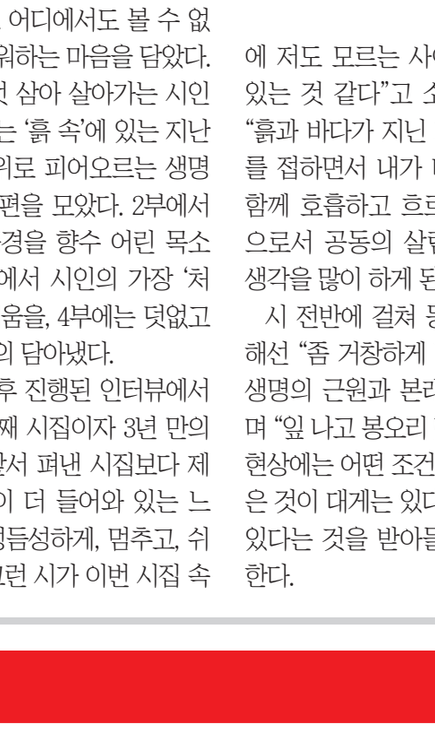
문학평론가 고봉준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는 "'폐쇄병동' 이후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 이번 시집의 특징은 산문시의 형태를 띤 작품이 많고 불교적 사유가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짚고 "스님의 시는 불교적 사유와 시적 사유가 일상의 상투적 인식을 벗어나는 순간에 교차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해설했다.

문태준 시인은 추천사에서 "승한 스님의 이번 시집은 폭포처럼 곧장 쏟아져 내린다. 걸림이나 막힘이 없다. 번개가 치는 듯한 파격을 선보이면서도 원형의 세계를 꿈꾸는 걸출한 시집"이라고 평했다.

승한 스님은 198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가, 200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가 당선됐다. 시집 〈수렵도〉, 〈퍽 환한 하늘〉, 〈아무도 너의 깊이를 모른다〉, 〈그리운 173〉 등을, 산문집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 〈좋아좋아〉를 펴냈다. 태고종 기관지 '한국불교신문' 주간을 역임했다. 2023년 제15회 불교문예작품상을 수상했다.

여수령 기자

화제의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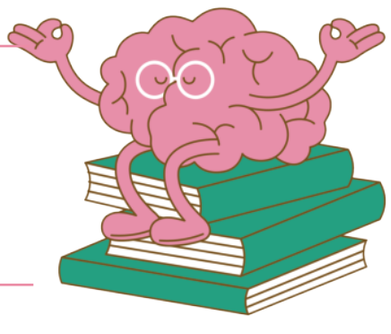


명상 수행자의 뇌는 다르다

마음 챙김 명상법

명상을 통해 뇌세포를 회복하고
치매를 늦추는 구체적 길을 보여준다.

뇌는 매일 피로하다.
생각, 감정, 스트레스는 뇌를 소모시킨다.
마음챙김은 노화하는 뇌를 다시 훈련시키는 가장 수행적인 방법이다.
이제 명상이 '뇌 건강법'이 되는 시대이다.



늙지 않는 뇌의 비밀
마음 챙김 명상법
혜명 김말환 | 204쪽 | 16,500원

무심보광 전 동국대학교 총장스님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동국대학교 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 논문은 《선수행에 의한 심리상담법 연구》 이다. 군법사로 활동하며, 군 생활에 부적응하는 장병들을 위한 선도 및 치유 활동으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훈하였다. 전역 후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상담 전공 객원교수, 서울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미래융합교육원 민간자격과정 '명상 지도 전문 강사과정' 주임강사로 활동하였다. 또한 서울 관악산 화승사에서 선심리 상담 및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선수행과 심리치료》《도표로 읽는 명상입문》《명상수행자를 위한 내면의 통찰과 자기성장》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선문답을 통한 심리 고찰》(한국불교학, 제29집, 한국불교학회, 2001)《심우도의 수행과 자기실현》(대각사상연구, 2002) 등이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12가지 불교 상징으로 만나는 '마음'



불교 행운 상징 컬러링북
박혜원 지음
담앤북스
1만3800원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올해 본지의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호 1면을 장식한 아기부처님과 천진불을 그린 박혜원 작가가 〈불교 행운 상징 컬러링북〉을 펴냈다. 연꽃, 보리수, 법륜 등 불교의 열두 가지 상징물을 컬러링 도안으로 담은 책이다.

박혜원 작가는 미국에서 산업디자인과 순수미술을 전공한 재원이다. 대학 졸업 후 뉴욕에서 작업을 이어가던 박 작가는 불법 상아 채취로 고통받는 코끼리에 대한 사연을 듣고, 관련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굿즈를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가치 있는 창작'을 모색해 왔다. 귀국 후에는 두 아이의 엄마로, 서울 조계사 선림원에서 마음공부를 하는 불자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색을 칠하며 나눈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은 '컬러링'이란 방식으로 감성과 명상을 전하는 작업의 마중물이 됐다.

한 달에 하나씩, 일 년에 걸쳐 천천히 채색해 나가는 여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12가지 도안에 담았다.

박 작가는 "사찰에서는 단청과 처마, 불상과 탑, 연꽃과 같은 아름다운 선(線)을 만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이 주는 편안함을 전달할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다 '컬러링'을 떠올렸다"고 말한다.

각 도안에는 불교문화와 상징물에 대한 짧은 설명을 덧붙여, 색칠하는 동안 자연스레 불교와 상징물의 의미를 새길 수 있게 했다.

美서 미술 전공…'가치 있는 창작'
불교 '선(線)' 편안함 담은 컬러링
"채색 위한 멈춤이 고요함 되길"

1월의 보리수 도안에는 "음력 12월 8일 성도절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날입니다. 보리수는 불교에서 깨달음과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라는 설명이 담겼다.

1월 해오름달, 2월 시샘달, 3월 물오름달, 4월 잎새달, 5월 푸른달, 6월 누리달, 7월 견우직녀달, 8월 타오름달, 9월 열매달, 10월 하늘연달, 11월 미티달, 12월 눈마중달로 계절의



박혜원 작가가 그린 올해 본지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호 1면 표지 그림.

특징을 반영한 이름도 흥미롭다.

채색은 색연필이나 수채화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절취선이 있어 한 장씩 뜯어 선물하거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뒷면에는 소망과 발원을 적을 수 있다.

박혜원 작가는 "어떤 색을 칠할지 고민하는 그 잠깐의 순간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도 책을 펼치는 순간만큼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내 안의 고요함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밝혔다.



〈불교 행운 상징 컬러링북〉의 12가지 도안. 그림 제공=담앤북스

독송·기도 위한 〈약사경〉 해설서



약사유리광 여래본원공덕경
상욱 · 현안 옮김
위앙북스 / 1만2000원

"이러한 유정들은 모두 지옥, 축생, 아귀의 길에서 끝없이 윤회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도 이 약사유리광여래의 명호를 듣게 된다면, 즉시 악행을 버리고 모든 선한 법을 닦아서, 악한 길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46p 중에서

미국 영화 선사의 한국인 제자들이 설립한 위앙북스가 펴낸 첫 책이다.

당나라 현장 법사가 번역한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을 우리말로 옮기고 해설을 덧붙였다. 위앙종 미국 도량에서 수행 중인 상욱 스님과 선명상 지도자 현안 스님이 번역을, 무경 스님(송광사 교무국장)과 대지 스님(청주 보산사)이 감수를 맡았다.

〈약사경〉은 병고와 재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중생을 위해 약사여래가 세운 열두 가지 본원(本願)과 그

위앙종 · 조계종 스님 함께 번역
"약사불 의지해 바른 수행의 길로"

가르침을 수호하는 12야차대장의 발원을 담은 경전이다. 책에서는 젊은 세대와 초심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현대어를 사용해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용어와 문맥을 자세히 밝혔다. 또 한문과 음독 표기, 우리말 번역을 함께 실어 이해를 높이고 기도와 수행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 번역자 상욱 스님은 "새로 출간되는 〈약사경〉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약사부처님을 접하고, 약사 불법으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함으로써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현안 스님은 "누구든 진정으로 약사부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문제나 장애도 극복할 수 있고, 결국 바른 수행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앙북스는 앞으로 영화 선사의 선명상 지침서와 정토 법문, 대승경전 강설집 등을 출간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젠더 정체성' 집착서 벗어나려면



젠더를 넘어서는 불교
리타 그로스 지음
김민정 옮김
운주사 / 2만원

"불교도는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가?" "페미니스트는 불교도가 될 수 있는가?"

'불교 페미니스트'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리타 그로스(Rita M. Gross, 1943~2015)의 유작 〈젠더를 넘어서는 불교〉가 우리말로 번역 출간됐다.

리타 그로스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20대에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힌두교를 거쳐 30대에 불교와 명상에 매료됐다. 1993년 〈가부장제 이후의 불교〉를 출간한 후 '외부 분석가에서 내부 비평가이자 옹호자로 변신'한 그는 위스콘신대학교 비교종교학 교수로 일하며 '불교 페미니즘' 연구를 개척했다.

이 책은 리타 그로스의 말년 유작으로, 페미니스트 학자이자 불자로서

'불교 페미니스트' 리타 그로스 유작
"젠더가 무아(無我)임을 성찰해야"

의 생각과 사상이 농축되어 있다. 전작들에서 붓다의 '해방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성 불자들이 지도력과 권위,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 그는, 이 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들이 '젠더 역할'이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젠더 역할에 끄달리는 것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가져왔다"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의 핵심은 진정으로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젠더가 무아(無我)임을 성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번역을 맡은 김민정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는 "리타 그로스는 여성성이나 남성성이 관습적으로 형성되고 고착된 자아라는 점을 간파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무아를 깨닫는 불교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책의 요지를 설명했다.

리타 그로스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원고 속 트랜스젠더 문제와 타라보살에 관한 내용은 후속 연구자들을 위한 과제로 남겨졌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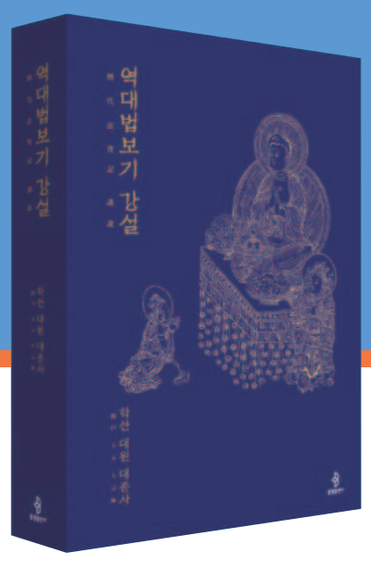
역대 조사들이 보인 불퇴전不退轉의 구법求法과 전법傳法의 여정!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曆代法寶記 역대법보기 講說 강설

한국불교의 큰 스승, 학산 대원 대종사가 전하는
전등의 역사와 역대 조사들의 가르침!

《역대법보기》는 혜능 이후, 남악-마조 계통과는 독자적인 법맥을 보여줌으로써 선맥의 다양성과 깊이를 조명한 초기 선종의 중요 문헌이다. 특히 무상無相 · 무주無住 선사가 주창한 삼구어三句語의 가르침은 대승大乘의 요의了義를 밝히는 지침이자, 돈오頓悟 선법의 정수로 일컬어진다. 이 책은 그 가르침과 부처님부터 역대 조사로 이어진 정법의 원류를, 이 시대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의 계승자인 학산 대원 대종사의 법음法音으로 전하는 귀한 가르침이다.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 | 656쪽 | 양장본 | 60,000원

학산 대원 대종사
鶴山 大元 大宗師

1956년 출가하여 오로지 구도의 길만을 걸어 온 우리 불교 대표 선승.
1986년 계룡산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울 때까지 제방의 선원을 돌며 효봉, 동산,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구산, 월산 스님 등 여러 선지식들 회상에서 정진했다. 현 해인총림 10대 방장인 스님은 지금도 후학들과 나란히 앉아 용맹정진해 오고 있으며, 간화선 수행 가풍의 진작과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하고 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스트비 카페 법여 스님

“매일 아침 스님이 내려주는 커피 드셔보실래요?”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젊은이들의 성지’ 서울 홍대 인근의 한 골목.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창가에서 드립 커피를 내리고 지나가는 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스님이 있다. 8월 1일 문을 연 ‘저스트비 카페’를 총괄하고 있는 법여(法如) 스님이다.

저스트비 카페는 도심 속 사찰이자 수행놀이터라 불리는 저스트비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이 최근 창업한 카페로 선원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 위치했다. 홍대선원은 선원을 안내하는 인포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자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꿈꾸며 카페를 열었다. 카페에는 매일 정성껏 내린 드립 커피와 카페오레, 수제 매실차, 직접 만든 젤라또 등 단촐하지만 구미를 당기는 메뉴들이 준비됐다. 특히 판매되는 모든 커피는 법여 스님이 정성을 다해 매일 직접 내린 것이다.

예술과 청춘의 기운이 넘실대는 홍대 앞에 위치한데다 스님이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으니 문을 열자마자 골목의 ‘핫플’이 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8월 12일 오후, 저스트비 카페를 찾았다. 홍대선원이 개원할 때부터 총무를 시작해 3년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던 법여 스님에게 저스트비 카페 관리까지 맡게 된 배경을 물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머무는 곳이길 바라요. 할 일이 적지 않지만 누군가가 ‘거기 스님이 있어서 좋다’고 해주면 그것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멕시코에서 시작된 불연

법여 스님은 일본 출신이다. 일본인이 한국에서 출가를 한 것도 신기한 일인데, 그 불연의 시작이 한국과 정반대에 위치한 멕시코에서였다고 하니 흥미롭다. 일본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던 20대 초반, 스님은 우연히 언론에서 1994년 1월 1일 유발된 ‘사파티스타 투쟁 선언’의 한 장면을 마주했다.

사파티스타는 1994년 멕시코 원주민 권익옹호를 목표로 빈곤주민 비율이 높은 피아파스를 거점으로 한 산악지대에서 봉기된 대규모 운동이다.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서양 자본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며 원주민 해방 선언을 정부에 선전포고했다. 이후 12일간 무장봉기를 이끌었고 정부군과의 충돌로 수십명이 사망했다.

세상을 배워가던 20대 초반의 법여 스님은 EZLN 상징인 검은색 발라클라바(눈을 제외한 나머지 얼굴 부위와 머리, 목 등을 감싸는 용품)를 착용한 모습의 사진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들의 삶을 연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멕시코행 비행기에 올랐다.

“산속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투쟁과 연대를 목격했습니다. 일본에서만 보던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만 갔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느 날 친구가 건넨 한 권의 책이 스님의 마음과 머리를 강타했다. 숭산 스님의 저서 〈선의 나침반〉이다. 처음엔 무심히 덮어뒀던 책이었지만 쿠바 여행 중 우연히 펼친 그날, 스님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하루 만에 다 읽어버렸어요. 충격이었죠.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본인 대학생서 조계종 승려로

멕시코서 만난 〈선의 나침반〉 매료

무상사서 출가…운문사승가대 개근

입방 전 우연히 들른 홍대선원서

‘불교 안서 재밌게 노는 법’ 발견

저스트비 카페서 매일 커피 내리며

지역민 함께 커뮤니티 공간 꿈꿔

스님은 결심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 곧 출가였다. 계룡산 무상사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해 운문사승가대학에서 2015년부터 4년간 수학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는 없었다. 경전 공부, 소임, 절 집안 살림까지 모든 것을 도반들과 똑같이 해나갔다.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처음 2년은 경전 공부가 힘에 부쳤지만 한국어가 익숙해지면서 3학년부터는 재미가 붙었다.

“졸업할 때 개근상을 받았어요. 공부하다 보면 체력이 떨어지며 병원에 실려 가는 학인스님들도 많았지만 저는 버텼죠. 그래서 개근상은 저에게 가장 큰 자랑이에요.”

졸업 후 무상사에서 소임을 맡아 2년 반 지내다 홍콩으로 넘어가 은사스님을 모시며 수행을 이어갔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울림이 있었다.



법여 스님은 가슴에 새기는 경전 한 구절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을 꼽았다. 일상생활에서 집착없이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강조한 스님은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다보면 힘이 들겠지만 생각, 감정, 느낌을 ‘나’라고 붙들지 않는다면 분별심을 극복하고 본래심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청년들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가지려 노력한다.



운문사승가대학 도반들과 함께.

홍대선원…‘있는 그대로’가 포교

2022년 10월, 동안거 결제를 앞두고 입방 전 들린 홍대선원에서 주지 준한 스님을 만났다. 일본어, 스페인어, 영어에 능통한 스님은 최고의 스태프였다. 법여 스님은 “막 문을 연 홍대선원에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다 보니 3년이라는 흘렀다”면서 “안거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열린 공간인 홍대선원은 특히 젊은 여행자나 유학생, 청년 불자들이 머무르며 수행과 생활을 함께 한다. 스님은 규율보다 ‘관계’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응원해 주고, 최대한 서포트 해 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해 봉사하려고 해요.”

평소 청년 포교에 대해 ‘불교 안에서 재미있게 노는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다는 스님은 “저스트비 카페가 딱이었다”면서 “자연스럽게 운영을 맡게 됐고, 천안까지 가서 드립커피를 배웠다”고 했다.

스님은 “억지로 가르치거나 규율로 얽매이기 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것이 포인트”라면서 “사람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어느 순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스님은 고민 상담도 정해진 시간 없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눈다. 힘든 기색이 보이면 문제를 해결하려 들기보다 “그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해준다. 말 한 마디에 담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고 있는 스님은 “사회와 가정이 그렇듯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면 청년들은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지금 홍대선원은 한국 불교계에서 가장 힙한 곳이다. 젊은 세대와 외국인 포교의 성공사례로 주목받는다. 그 시작은 단순했다. 게스트하우스를 기반으로 명상과 채식 등 불교문화를 소개했고 이제는 빨래방과 카페까지 창업했다.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가득 채운 생활 공간이 있기까지 홍대선원 곳곳에는 총무인 법여 스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주변에서 다 의아해 하며 반대했죠. 스님이 무슨 카페냐고. 그래도 해봤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홍대 앞 작은 골목 카페에서 법여 스님은 매일 아침 8시, 변함없이 커피를 내린다. 골목을 지나는 모든 이에게 웃음을 건네며 있는 그대로 머문다.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해 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스트비 카페는 오늘도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맞이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31 감정 다스리기



▶한줄 요약
기도와 명상은 우리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의 감정을 살피고,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며, 세상의 모든 모습을 조화롭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감정 살펴 평상심을 유지하라

[오늘의 명상]
하늘 젖으니 산 비 내리고
산천초목 방울방울 내 친구 되었네.
어제의 흰 구름 옛 벗 되어 그리울재
하늘 말린 햇살들이 반가이 미소 짓네.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지구의 한쪽이 밝으면 반대쪽은 어둡습니다. 태양은 그대로 있으나, 지구가 스스로 움직임으로 낮과 밤이 교차합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본래의 마음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좋고 나쁜 감정이 생겨납니다.

상대를 탓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것은 태양을 탓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모습에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다 좋거나 다 나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맑은 하늘이 비를 내릴 수 없고, 어제의 구름이 있으므로 오늘의 햇살이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감정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 시시비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시비비는 모두 우리 마음의 움직임에서 비롯됩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 어떤 시비도 단순한 인연과 인과의 모습으로 보일 뿐, 감정이 상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나 토론, 심지어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먼저 드러내면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고, 경기를 이길 수 없으며, 자신의 마음만 상하게 됩니다.

대개 옳고 그름은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상하게 되면 시시비비의 본질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나중에는 본말이 전도되어 감정만 오가게 되고, 모두의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항상 나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인과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평상심(平常心)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상심은 우리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하고, 삶을 더욱 평화롭게 만듭니다.

좋고 나쁜 감정이 서로 충돌하거나, 반대로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순간들은 모두 인과의 결과입니다. 좋은 마음의 인과가 나타날 때는 서로가 의기투합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마음의 인과가 나타날 때는 사소한 일에도 서로 충돌하여 마음이 상합니다.

이러한 순간에는, "지금 내 마음의 인과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자각하며 감정을 추스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바로 다스리는 능력은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세상의 모습은 이쪽 모습과 저쪽 모습이 조화를 이루듯, 우리의 마음도 상반되는 감정이 오가며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시시비비의 감정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와 명상은 우리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의 감정을 살피고,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며, 세상의 모든 모습을 조화롭게 바라보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오늘의 명상]
푸른 하늘 흰 구름 나의 벗이요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정다운 이웃일세.
기러기와 함께 한 이 하늘 멀다 걱정 않고
한강물 마신 이 물 깊다 원망 않네.

나를 둘러싼 자연은 나의 벗이자 이웃입니다. 하늘을 나는 기러기는 멀리 떠나도 걱정하지 않으며, 한강물을 마신 사람은 물이 깊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흰구름과 먹구름, 맑은 바람과 센 바람, 구름 가린 달과 밝게 비친 달, 기러기와 한강물 모두가 나의 이웃이듯,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 또한 자연 만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흰구름 같은 사람은 좋고, 먹구름 같은 사람은 나쁘다며 구분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을 쉽게 구분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흙과 함께 생활하며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서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농부에게는 편리함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름으로 인분을 만지기도 하지만, 그리 역겨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은 이를 힘겨워하며 비위를 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누가 더 편한 마음일까요? 정작 당사자는 아무렇지 않은데, 오히려 옆 사람이 마음이 더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 자체와는 상관없이 각자의 업식(業識)이 따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감정 상하면 시비 본질 사라지고
남는 것은 상처뿐…'평상심' 중요
평상심, 감정 소용돌이 탈피 단초
기도 · 명상, 평상심 유지에 효과"

세상과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업(自業)·동업(同業)·공업(共業)에 의해 한치의 오차 없이 원인과 결과의 인과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가올 일은 아직 당도하지 않았으니 미리 염려하며 마음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의 삶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꿈속의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며 느끼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원인과 결과의 완벽한 인과적 인연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고유의 법칙을 깨고 인과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마음을 살피며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연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듯, 나와 인연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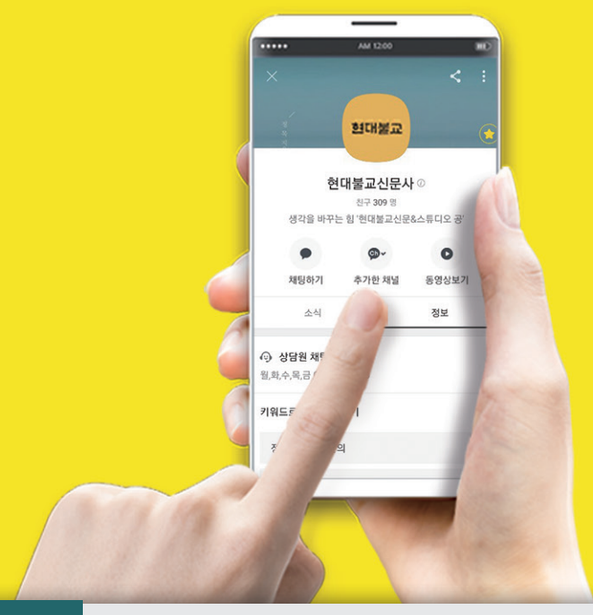
기도와 명상은 이러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자연을 바라보듯,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 마음을 관조하고 편안함을 유지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십시오.

〈조계종 총무원장〉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⑮ 잘 간다[善逝]는 것 : 천상병의 '귀천'



▶한줄 요약
시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체적으로 '소풍'을 즐겼다. 자족(自足)하는 마음으로 소풍을 즐겼으니, 하늘로 돌아가는 길 또한 가벼웠을 것이다.

소풍 같은 인생

얼마 전 암 투병 중인 벗에게서 전화가 왔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지만, 꾹 참았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늙고 병들며 죽는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유한한 실존 앞에서 누군가는 절망하고 삶이 무의미하다 말하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이들도 있다. 종교 역시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를 으뜸가는[宗] 가르침[教]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부처님도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실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해답을 찾아 출가했다. 〈반야심경〉에서는 불생불멸(不生不滅), 즉 삶과 죽음이 본래 없다고 말한다. 삶과 죽음은 마치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모두 형태만 변했을 뿐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H_2O)라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 삶과 죽음은 하나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리 슬퍼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막상 나의 문제로 다가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저 불안하고 두려울 뿐이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넓은 간극이 존재한다.

인생을 소풍에 비유한 시인도 있다. '귀천'이란 시로 널리 알려진 천상병 시인이 그 주인공이다. '귀천'은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겠다는 부분이 인상적으로 다가온 시다. 시인의 말처럼 인생을 소풍이라 생각하면, 정말 삶에 대한 애착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천상병은 '천진무구(天眞無垢)'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시인이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티 없이 맑은 마음으로 살았다는 뜻이다. 본래 일본에서 태어난 시인은 광복과 함께 귀국해 마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다. 당시 마산고등학교에 편입한 천상병은 '꽃'의 시인 김춘수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만나게 된다. 제자의 습작 노트를 읽어 본 스승은 한눈에 시재(詩材)를 알아보고 유치환에게 추천한다. 이런 인연으로 천상병은 〈문예〉지를 통해 등단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간다. 사제간의 운명적 만남을 기념하기 위해 몇 해 전 마산고등학교에 시비가 건립되었다. 시비에는 김춘수의 '꽃'과 천상병의 '피리'가 나란히 새겨져 있다.

1967년 일어난 '동백림 사건'을 빼놓고 천상병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한 시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술값을 받아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삶 · 죽음 긍정적 세계관 담겨
소풍 즐거워야 평온히 돌아가
자신 성찰로 아름다운 마무리

막걸리를 마시곤 했는데, 그것이 간첩에게 받은 공작금으로 조작된 것이다. 비록 선고 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때 받은 전기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는 평생 힘들게 살아야 했다. 치아가 대부분 빠진 것은 물론 성기능 장애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한때 영양실조로 쓰러진 시인은 행려병자와 무연고자로 처리돼 정신병원에 갇히기도 했다. 당시 지인들은 그가 사망한 줄 알고 유고 시집을 출간했는데, 그것이 바로 〈새〉다.

다 죽어 가는 시인을 구원한 사람은 알려진 것처럼 목순옥 여사다. 그녀는 천상병과 결혼해 지극히 간병해 주었다. 또한 주변의 도움으로 '귀천'이라는 찻집을 열고 생활을 이어 나갔다. 그 덕분에 시인은 행복하게 살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늘로 돌아갔다. 그는 '행복'이란 시에서 예쁜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 걱정도 없고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막걸리를 사 줘서 행복하다고 노래하기도 했다.

'귀천'은 천상병의 대표적인 시로 오늘까지도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다. 1970년 발간된 〈창작과 비평〉에 발표한 시다. 〈천상병 전집 : 시〉와 〈새〉에도 함께 실려 있다. 귀천(歸天)은 글자 그대로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바로 이를 의미한다. 시인의 묘비 뒷면에도 이 시 마지막 구절이 새겨 있다. 대개 죽음은 슬프고 우울한 느낌이지만, 이 시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느낌이다. 삶과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시인의 세계관이 드러나는 시라 할 것이다. 직접 들어 보기로 하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하늘로 돌아가는 길

이 시를 읽으면서 "몸은 아침 이슬 같고[身如朝露] 목숨은 지는 해와 같다[命若西光]."라는 〈수심결(修心訣)〉의 구절이 생각났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짧고 유한하다는 뜻이다. 시에서는 새벽빛에 스러지는 '이슬[朝露]'과 '노을빛[西光]'으로 표현하고 있다. 삶이 무상(無常)하다고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이슬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저녁노을과 함께 놀다가 소풍이 끝나면 하늘로 돌아가겠다고 시인은 노래한다.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하고 '쿨'하게 받아들이는 낙천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이처럼 아름다운 마무리가 가능한 것일까?

개인적으로 위대한 종교가나 철학자는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 궁금해서 60명을 선택해 살펴보고 2권의 책으로 출간한 적이 있다. 선사들이 죽기 직전에 남긴 임종게를 분석한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과 동서양 철학자와 종교인의 묘비명에 담긴 글을 해석한 〈마지막 말의 철학〉이 그것이다. 이들을 분석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컸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죽음을 미련이나 회한 없이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다. 이때 내린 결론은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부처님을 가리키는 호칭 중에 잘 가셨다는 의미의 '선서(善逝)'가 있는 것도 결코 우연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잘사는 것일까? 이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는 정답은 없다. 다만 이 물음에 대해 깊이 성찰한다면, 자신만이 내리는 답은 있게 마련이다. 이를 우리는 인생관이나 세계관, 혹은 자기 철학이라 부른다. 이것을 지니고 사는 것과 그냥 사는 삶이 결코 같을 수는 없다.

천상병은 '인생은 소풍'이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살다 간 인물이다. 인생을 소풍이나 여행으로 생각하면,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은 다를 것이다. 소풍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끝나면 하늘로 돌아간다고 여길 테니 말이다. 소풍이 끝나면 아쉬움은 남아도, 괴로움이나 슬픔, 회한이 남지는 않는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집에 돌아오니 참 좋다. 역시 집이 좋아."

소풍을 마치고 가는 곳이 하늘이든 어디든,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생각하면 죽음을 훨씬 평온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소풍을 제대로 즐기고 있느냐는 것이다. 소풍이 재미없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무거울 수밖에 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돼지들의 소풍'이라는 이솝우화가 있다. 돼지들이 소풍을 떠났는데 대장이 자신만 빼고 숫자를 센다는 이야기다. 옆에 있던 돼지가 하도 답답해서 자신이 세겠다고 나섰다가 그 역시 자신을 빼는 바람에 인원 점검을 마치지 못한다. 결국 소풍을 즐기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된다.

비록 우화지만, 우리들 삶 또한 별반 다를 게 없다. 정작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돼지들만 세고 있으니 말이다. 다른 돼지로 상징되는 돈이나 물질, 고가의 자동차와 유명 브랜드의 아파트만 좇다가 정작 중요한 자신은 소외시키며 살고 있다. 내가 주인공인데 엑스트라인 돈만 나오는 이상한 영화를 찍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삶이라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귀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소풍이 즐거워야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다른 돼지만 세면서, 그러니까 돈 벌 생각만 하면서 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병에 걸리는 등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우리가 시나 소설, 철학 관련 책을 통해 인문적 사유를 하면서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인은 다른 돼지들을 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체적으로 소풍을 즐겼다. 이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삶을 '소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난일지 몰라도, 그것은 시인에게 분명히 '존재'하는 행복이었다.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한 잔 커피와 갑 속의 두둑한 담배 / 해장을 하고도 버스값이 남았다는 것."

'나의 가난은'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 자족(自足)하는 마음으로 소풍을 즐겼으니, 하늘로 돌아가는 길 또한 가벼웠을 것이다. '귀천'을 통해 삶을 반추해 본 사람이라면, 훗날 자신의 무덤에 이런 묘지명을 세워도 좋을 것 같다.

'소풍 왔다 간다.'

소풍 나왔으니, 잘 놀다 가는 게 인생에 대한 예의 아닐까. 암 투병으로 힘들어하는 벗이 '귀천'을 읽고 평온한 마음으로 남은 소풍을 즐기면 좋겠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43호 | 15 | 전면광고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보장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300평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 15억

- 위치 : 경남
- 면적 : 700평, 전통사찰
- 법당 : 30평 외
- 매가 : 30억
- 산 밑, 주차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포교원 하실분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 매매가격 : 5억5천
- 대지 : 107평(354㎡) / 건평 : 150.2평
- 지하 : 24.4평 / 1층 : 67.4평 / 2층 : 58.3평 / 옥상
- 1층과 지하 전세줌 / 1층 화장실1
  2층 법당1 방2 주방 거실 화장실2

010-3042-0852

포교당 안내

전월세입자 구함

-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160 4층
- 면적 : 4층 45평, 총 90평 전체 사용 가능
- 대웅전 약 30평, 공양간, 종무소
- 요사채 별도 존재,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전세금 및 집기 일체 5000만원(절충)

010-4179-62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동고령ic부근
- 230평 법당18평
-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과 용왕불 3필지
- 가액 : 4억7천
- 절충가능

010-3540-8431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대동안길 32번지 해동선원
- 신축법당 25평, 요사채 50평
- 산신각 사리전 나한전 용왕당
- 총 290평 및 국유지 720평
- 가액 : 3억 6천 만원(절충가능)

010-3596-008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00평 / 임야 : 3600평
- 건물 : 대웅전55평 공양실35평 종무소10평 요사30평
- 천연 지하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7억원

010-6764-0034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천안 생활권)
- 법당 30평/공양간 15평 요사채 20평
- 가액 : 2억 8천(융자5천포함)
- 대원사

010-5416-085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 7억 4000만원

010-3868-8219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130평
- 법당, 소불당 삼성각 용왕당
- 사시사철 자연수, 상수도 전망 아주좋음
- 매매 또는 전월세 가능

010-5033-142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합천호수로(무학대사 숫가락으로 우물판 자연동굴 옆, 굿당-기도처 최적지)
- 약 80평 사찰
- 법당 요사채 대지420평 임야 210평
- 가액 : 3억원

010-2078-959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90평 건물,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5평
- 조용하고 기도정진 좋은 곳
- 은행, 병원, 마트 등 가까움
- 가액 : 5억원(절충 가능)

010-2458-6655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 5000만원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도원동(대곡아파트 단지, 대곡시장 옆)
- 5층 건물 중 4층, 건평 60평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트 완비
- 보증금 1000만원/월세 70만원(현재, 절충)
- 법회시설 완비(바로 법회 가능)
- 찜질방1, 공양간, 친견실1, 종무소1

010-3545-444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완도
- 평수 : 1860평
- 법당 : 25평 산신각 : 8평
- 요사채 : 45평, 28평

※태양광, 저온창고, 화장실 3개

- 가액 : 5억(절충 가능)

010-5635-9499

주택 지상권 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 용도 : 토굴, 요양, 주말휴식
- 방1 주방1 화장실 실내1, 실외1
- 창고3 원두막1 잔디마당
- 리모델링, 에어컨 설비, 기름보일러
- 4가구 거주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
- 가액 : 2800만원

010-5454-7662

들기름을 이용한 단청보호 및 색채 복원제

들기름 전통 도료

특허출원번호 10-2023-0181680

國寶 蘇子油

소자유

단청보호, 색채 복원제

발수코팅 · 오염방지 기능

천연의 식물성 들기름 원료를 이용하여
우리의 전통과 과학으로 특화된 기술의
결합체인 들기름 전통 도료입니다.

항균시험 99.999%, 중금속 불검출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제주목 관아(문화재) 시공사례

동화특수산업(주)
국보도료연구소

문의 | 010-3747-2111
TEL | 031-451-6232 FAX | 031-451-6238
주소 | 경기도 군포시고산로 166, SKI 벤티움 102동 1201호
E-mail | woodgim@hanmail.net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전국 산중 사찰 중 개곡 있고, 숲이 많고, 터가 넓고, 도로좋은 곳
- 산중사찰 중 토지 넓은 사찰
- 수목장, 납골당 가능한 곳(경북)
- 도심 포교당 1억에서 3억
- 도심 사찰 중 15억 이내
- 사찰함께 운영할분(템플스테이 등)
- 전통사찰 중 문화재보유 사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충남·북
- 1억~2억 금액 암자(토굴)
- 2~3년 사찰임대 놓으실분 구함
- 2~3년 후 임대한 스님 구입확실

053-745-9999, 010-2512-777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67번지 4층
- 약 30평, 방2, 법당1, 화장실1
- 보증금 500/월세 4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인연닿아 포교당 운영하실 스님 찾습니다

010-4641-5474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8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생활안내

1543호 | 16 | 전면광고

위 없이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려는 마음 냈다면
그것이 바로 출가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유마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 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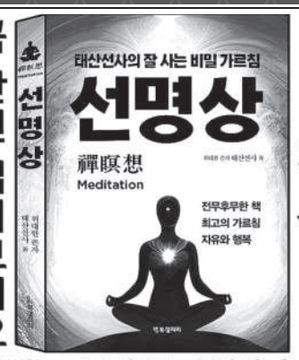
상담 : 010-2090-4030

(사찰행사)범음범패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생전예수재

연암당 덕평스님
010-6219-4757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지혜 방편 ! 사주 · 명리 · 구성학

1 :1 강의 단기완성 !
포교당 스님! 찻집보살님!
안양시. 토굴 · 스님
010-9497-3476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 즉시 영가 천도
종교인 상담불가,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사무장 구함 010-4804-2309

불교 용품 경매 알림

품목 : 불상, 불경, 불기
불화용품, 불교관련 용품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1시부터
장소 : 전북 남원시 사매면 세동길 8
오리정휴게소 내 010-3717-4032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제2기 수강생 모집공고

1.모집대상
• 한국불교태고종 스님. 전법사. 교임 • 타종단 승려(참여가능)
• 불교신자 및 부처님의 교법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
2. 모집학과 및 교육내용
• 경전반 : 천수경, 반야심경, 예불제반의식
• 의식반 : 영남범패 전통의식, 다비식, 재의식(시다림,49재), 점안의식, 불교사물 등
3. 교육일정
• 경전반 : 2025년 3월 17일(월) 개강/ 2025년 7월 22일(화) 수료
• 의식반 : 2025년 3월 11일(화) 개강/ 2025년 7월 22일(화) 수료
4. 교육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사 3층 태고사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93)
5.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298-3634)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교무국장 법륜스님(010-9233-8371)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사찰스틸건축 전문
성공기업

스틸공법으로 목재대비 1/3 비용
공사기간 2개월로 단축



010-2628-9944

'육임학당' 개원

'육임학당'이 서울과 대구에서 열립니다.

효사 저는, 거절할 수 없는 요청으로 육임학당 '효사숙'과 '대구숙'을 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난 2001년 '육임래정비법'을 세간에 펴낸 이래 '육임산책' 등 효능 있는 육임활용서를 다수 간행했습니다.
특히 육임 지평을 제시한 '육임강론' 등 육임학습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육임학당인 '서울 효사숙' '대전숙' '전주숙' '광주숙' '진주숙' '부산숙' '대구숙' 등 전국 순회강의를 진행했으며, 한국경제TV 대육임 강의도 진행하였습니다.
동방대학원대 미래예측학과 교수 때 프로그램 '효사비결', 육임앱 '육임AI'를 만들어내는 등 저에게 녹아있는 육임의 정수.
그 필수불가결적 현장성의 효능을 아낌없이 꺼내 효과있게 쓰실 수 있게 숨김없이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육임학당 '효사숙'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24길 4. 세림펠리체 1301호

육임학당 '대구숙'
대구시 동구 방촌로 1길 151. 자비사 2층

※육임프로그램 '효사비결', 육임 앱 '육임AI'를 구입해 쓰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수강하십시오.

- 교육안내 | 2025. 8. 23(토) 13:00
  단, '효사비결'과 '육임AI' 구입하신 분은 15:30 입니다.
- 교육기간 | 3개월 (육임활용 효능법 위주)
- 등록비용 | 60만원 (매회 강의-영구활용자료 제공)
  ('효사비결', '육임AI'를 구입하신 분은 20만원)
- 신청마감 | 8월 21일(목) 17시까지
- 입 금 | 농협 301-0252-7245-11 도서출판 보화천교

문 의 02-567-3850

고복자 효사 배상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양해드립니다.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⑯ '지옥에서 온 판사'(2024)

진정한 참회만이 용서 이끌어

조각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쪽 손을 어느 쪽 무릎에 대고 있을까?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청동상 자세가 오른손 손등으로 턱을 괴고 그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 무릎에 붙이고 있어서 보기에 불편할 정도로 몸이 틀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특이한 자세의 '생각하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까지는 미처 모르는 사람이 많다.

로댕은 그 유명한 단테의 시 '신곡'의 '지옥편'을 형상화해 '지옥의 문'이라는 청동 작품을 만들었다. 6m가 넘는 이 거대한 작품에는 180명이 넘는 다양한 인물들이 표현돼 있는데, 지옥문 위에 앉아서 그들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단테가 묘사한 지옥을 표현하고 있는 만큼 '생각하는 사람'이 실은 단테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로댕의 '지옥의 문'과 무척 닮은 문을 우리는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만날 수 있다.

유스티티아(배우 오나라)는 살인을 저지른 인간의 영혼을 심판해 지옥(게헨나)으로 보내는 악마 판관이다. 그런데 어느 날, 거짓 지옥의 재판정에 가야 할 판사 강빛나(배우 박신혜)가 살인 지옥의 재판정으로 잘못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강빛나를 살인 지옥으로 보내 버린 유스티티아는 지옥의 총책임자 바엘(배우 신성록)에게 인간 세상에 올라가 살인을 저지르고 용서받지도 못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는 죄인 10명을 1년 안에 지옥으로 보내라는 처분을 받는다. '지옥에서 온 판사'는 그렇게 강빛나의 몸에 깃들어 사는 악마 유스티티아가 악질적인 살인자를 지옥으로 보내는 이야기이다.

유스티티아가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의 이마에 '게헨나'라는 낙인을 찍어 지옥으로 보내려고 할 때 로댕의 작품을 꼭 빼닮은 지옥의 문이 열린다. 여기에 악마들과 사탄이 등장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는 등 드라마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기독교적이다. 그런데 또 살인 지옥이나 거짓 지옥 등 여러 가지 지옥 세계가 있고, 또 그런 지옥을 담당하는 판관이 있다는 설정은 은근히 불교적이다.

사실 불교만큼 지옥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종교도 없다. 잠시도 쉴 틈 없이 고통을 받는다고 '무간지옥'이라고 번역하는 아비지옥을 시작으로 뜨거운 지옥이 여덟(팔열지옥)인데 그 각각의 지옥에 딸린 지옥이 수십 개씩이다. 또 뜨거운 지옥만큼은 덜 알려져 있지만 추운 지옥이 또 여덟(팔한지옥)이다. 그렇게 해서 대략 불교에서 설명하는 지옥이 140개가 넘는다. 그만큼 우리 중생이 저지르는 죄가 많다는 뜻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중생의 삶이 다양하고 또 다양한 만큼 세세한 교화가 필요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진 출처=SBS 공식 홈페이지

기독교적 세계관에 불교 소재 가미
정의는 피해자 용서로 완성 메시지
불교적 판결은 처벌 아닌 구제 중심

불교의 지옥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시왕(十王)이다. 사람이 죽은 뒤 7일마다 염라대왕을 필두로 열 명의 저승 재판관에게 차례로 심판을 받는데, 각 시왕은 살아생전의 업보를 심판하고 그에 따라 환생과 처벌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각 시왕은 특정 지옥의 형벌과도 연결돼 있다. 그런 점에서 '지옥에서 온 판사'는 기독교의 겉모습을 하고 있는 불교 교화 드라마인가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 같은 아이러니한 성격을 보여 준다.

드라마에서도 설명하지만 유스티티아는 '정의'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그 정의의 여신이 바로 유스티티아이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오직 죄의 무게로만 판결을 하기 때문에 드라마 속의 유스티티아는 모든 죄인의 변명이나 사연 따위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일말의 선처도 없는 냉혹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졌다. 그런 유스티티아가 한다온(배우 김시우)을 만나 눈물을 배우면서 악마의 판사가 아니라 인간의 판사로 변한다.

이 드라마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시 '정의'이다. 드라마는 가장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착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 거 그게 정의"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정의는 피해자의 용서로 완성된다. 강빛나는 정태규(배우 이규한)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로 지난 세월을 보상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할 뿐이다. 법이 결코 자신들을 버린 적이 없음을 확인받고 싶을 뿐이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기준으로 양형을 하고자 한다. 피해자와 피해 유가족이 용서하지 않는 죄는 법 또한 용서하지 않는다."

드라마에서 강조하듯 피해자의 용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에 달려 있다. 사과와 반성을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참회일 테니 '지옥에서 온 판사'의 주제를 불교식으로 바꾸면 진정한 참회만이 제대로 된 판결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불교적인 판결은 처벌 중심이라기보다는 구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데바닷타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고, 오역죄를 저지른 일천제마저도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불교이다. 심지어 목련존자는 지옥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구제하기도 하고, 지옥고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지옥을 전담하는 지장보살까지 있다.

일상에서 늘 독송하는 〈천수경〉의 참회게를 통해 우리는 참회의 의미를 이렇게 알고 있다.

"죄는 자성이 없이 마음을 따라 생길 뿐이니/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죄도 역시 사라진다./ 죄도 사라지고 마음도 없어져 모두 공해지면/ 이것을 진정한 참회라고 한다."

죄라는 것의 실체가 없고 마음의 문제라고 하니 죄와 참회라는 것이 그저 마음만 바꿔 먹으면 해결되는 간단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는 대단히 엄중한 경책이 담겨 있다. 행동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한 마음까지도 문제 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는 결과만이 죄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이미 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참회 역시 입으로 사과하고 행동으로 사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의 문제가 된다.

진정한 용서는 처절한 참회를 바탕으로 한다. 참회하지 않는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지만, 부처님의 교화로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깨달은 앙굴리말라처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참회를 한다면 그 죄업이 한순간 녹아서 사라지기도 한다. 이것이 불교의 자비이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계율을 어긴 비구라도 수호·공경해야 할 것 설해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⑪ 십종의 수승공덕(十種殊勝功德)

십종의 수승공덕(十種殊勝功德)은 실제로는 여덟 가지가 열거돼 있으며, 그 주축을 이루는 것은 육바라밀입니다. 이 부분은 계율을 깨트린 비구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보는 유정들이 열 가지 훌륭한 생각을 내며 그로 인해 크나큰 공덕 보배의 이익을 얻는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하시는 부분입니다.

"내 법 안에서 출가한 이가 비록 계율을 깨트렸다 하더라도, 그 형상을 보는 저 유정들은 부처를 생각하며 간절하게 존중하고 믿으며 공경하는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그는 이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끝내 외도 스승의 글 내지 주장이나 그 제자들에게 귀의하지 않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혹은 그를 보는 유정들은 거룩한 계율과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이간질, 음주 방탕과 두려움을 떠나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또 그를 보는 유정들은 보시를 생각하며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큰 재산과 지위를 얻어 바른 선정에 들고, 바른 행을 하는 이를 친근하며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또는 그를 보는 유정들은 인욕을 생각해 부드럽고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이로써 추악한 말, 잡되고 더러운 말과 성냄을 버리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또는 그를 보는 유정들은 출가를 생각해 부지런히 수행하고자 하는 훌륭한 생각을 내나니, 이로써 속세 법을 버리고 출가 정진하며 훌륭한 행을 닦아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또 그를 보는 유정은 산란한 마음을 버리고 정려·등지(等持) 등 훌륭한 생각을 냄으로써 산림과 수행하는 곳을 좋아하고 부지런히 선정을 닦으며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또한 그를 보는 유정은 지혜를 생각하는 뛰어난 사유(思惟)를 내어, 이로 말미암아 그는 법문 듣기를 즐기고 바른 법을 읽고 외우며,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혹은 그를 보는 유정들은 전생에 출가하여 심은 선근을 생각하는 훌륭한 사유를 하고 부드러운 말로 위문하며 그 발에 예배하나니, 이 인연으로 장차 존귀하고 세력이 있는 집에 태어나고, 무량한 유정들이 우러러보게 되며, 모든 두려움을 떠나 큰 열반의 성에 들어가느니라.

선남자야, 내 법안에서 출가한 사람이 비록 계율을 깨트렸다 해도, 그 형상을 보는 유정들은 이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생각을 내어 무량한 공덕의 보배 무더기를 얻는다. 그러므로 일체의 왕이나 대신, 재상 등이 그를 곤장으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꾸짖거나 사지를 찢거나 혹은 목숨을 끊는 일은 옳지 못하느니라. … 이 같은 비구가 비록 법기는 아니더라도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행동하는 그 위의는 모든 성현과 같으며, 그를 봄으로써 무량한 유정들의 갖가지 선근이 다 성장하게 되며, 선(善)으로 나아가 하늘에 나게 하고 열반의 바른 길을 열어 보이느니라. … 목숨을 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니라. … 이 같은 비구를 비록 내가 하물며 비법에 의함이겠느냐.

대범천아, 이렇게 계율을 깨트리고 악을 행하는 비구를 나의 법인 율장(律藏)에서는 그를 송장이라 하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출가한 계덕(戒德)의 남은 힘이 있느니라. 비유하면, 소와 사향노루는 신명을 마친 뒤에는 우황과 사향이 각각 있어서, 무량한 유정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처럼 계율을 깨트린 비구에게도 그와 같이 계덕의 힘이 있어, 무량한 유정들에게 큰 이익이 있느니라. … 계율을 깨트린 비구도 그와 같아 나의 법인 율장에서는 그를 송장이라 하지만, 출가한 위의와 형상이 있어 무량한 유정들이 잠깐만 모아도 청정한 지혜의 법안을 얻게 한다. 하물며 남을 위해 바른 법을 널리 설함이겠느냐. … 그러므로 대범천아, 이렇게 계율을 깨트리고 나쁜 행을 하는 비구일지라도, 모든 속인들은 다 그를 수호 공경하고 공양해야 할 것이다. 나는 끝내 재가자가 곤장으로 그를 때리거나 옥에 가두거나 그 목숨을 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느니라." 그리고 게송으로 외우셨다.

"첨박가 꽃이 비록 시들었어도 다른 여러 꽃보다는 나은 것처럼, 계율을 깨고 악을 행하는 비구일지라도 외도의 무리들보다는 나으니라."

이처럼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계율을 깨트리고 악행을 저지른 비구라도 외도들보다는 나으니, 그 비구가 지니고 있는 계덕의 힘이 남아 있기에 그를 수호 공경해야 함을 두둔하시며, 더욱이 그를 해치지 않아야 함을 단호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송림사 주지〉

'재구매율 1위로 입증한 건강지킴이' 오행컬러패치 2025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하나사면 하나를 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⑯ '암탉이 울 때': 문정 왕후와 불교 중흥



▶한줄 요약
조선시대 중 불교가 공적 영역 안에서 존재를 인정받고, 불교미술이 찬란히 꽃피운 때가 바로 문정 왕후의 시대이다.

왕실 안녕 빈 불심, 불화로 꽃피우다

"사신은 논한다. 윤씨는 천성이 강한(剛狠)하고 문자(文字)를 알았다 … 윤비(尹妃)는 사직의 죄인이라고 할 만하다. 〈서경(書經)〉 목서(牧誓)에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은 집안의 다함이다.' 하였으니, 윤씨(尹氏)를 이르는 말이라 하겠다…."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4월 6일 임신 두 번째 기사)

1565년(명종 20) 4월 창덕궁 소덕당에서 문정 왕후 윤씨(文定王后 尹氏, 1501~1565)가 승하한 날, 사관들은 위와 같은 기록을 남겼다. 문정 왕후가 누구인가. 문정 왕후는 조선의 제11대 왕인 중종(中宗)의 계비(繼妃)이자, 중종과 장경 왕후 윤씨(章敬王后 尹氏)의 소생인 인종(仁宗)의 계모요, 열두 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친아들 명종(明宗, 재위 1545~1567)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펼치고 정국을 운영한 왕실의 웃어른이었다.

사관들의 눈에 문정 왕후는 큰 옥사를 일으켜 사림(士林) 세력들을 제거하고 한도 없이 불사(佛事)를 봉행해 내외의 재정을 고갈시키며 민가의 어머니처럼 왕을 꾸짖은, 사직의 죄인이었다. 성리학적 이념이 자리 잡은 16세기 조선에서 '천성이 강한(剛狠)하고 문자(文字)를 아는', '여주(女主)'의 정치는 암탉이 새벽에 우는 것처럼 용납할 수 없는 이변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를 돌아보면, '암탉이 울 때' 야말로 불교 교단이 공적 영역 안에서 존재를 인정받고 불교미술이 찬란히 꽃피운 시기였다. 이를 제일 잘 보여 주는 때가 바로 16세기, 문정 왕후의 시대였다.

'암탉이 울 때': 문정 왕후와 불교 중흥

문정 왕후는 윤지임(尹之任)의 딸로 17세가 되던 1517년에 왕비로 간택, 책봉됐다. 4명의 공주를 낳은 후, 1534년(중종 29)에 34세의 나이로 비로소 아들(후일의 명종)을 낳았다.

젊은 시절부터 신심이 돈독했던 문정 왕후는 1545년에 명종이 즉위한 이후에는 섭정의 위치에서 불교를 외호했다. 왕후는 척신(戚臣) 세력의 동의를 얻어 불교 중흥 정책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사림파의 독주를 제재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굳세고 거칠다[剛狠]'고 비판 받은 그녀의 강인한 성품은 빗발치는 견제에도 흔들림 없이 호불 정책을 결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명종실록〉에 의하면, 불교를 일으키는 대업을 수행할 승려를 모색하던 문정 왕후에게 내수사(內需司)에서 허응당 보우(虛應堂 普雨, 1509~1565)를 천거했다고 한다. 내수사는 왕실의 재정 관리를 담당하는 관서로, 중종대와 명종대에는 왕실 불사를 실행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문정 왕후는 1548년(명종 3) 12월 명종대 왕실과 인연이 깊은 봉은사(奉恩寺) 주지로 보우를 임명할 정도 신임했다. 봉은사는 선릉을 수호하는 능침사찰(陵寢寺刹)이었다. 선릉은 곧 명종의 조부인 성종(成宗)의 능이다. 유생들은 지속해서 보우를 비방하고 참소했으나 문정 왕후는 승하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보우를 신임했다.

조선시대에 불교를 신앙했던 왕실 여성 중 문정 왕후가 가장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섭정의 위치에서 정책적으로 불교를 중흥했기 때문이다. 문정 왕후는 1550년(명종 5) 12월 15일 상진(尚震)에게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연산군대에 붕괴한 선종과 교종의 승정체제(僧政體制)와 승과를 부화시킬 것을 명했다. 비망기를 내린 155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를 반대하는 상소문이 400여 회나 이어졌을 정도로 유생과 신료들의 반대는 극심했다. 그러나 유림의 반대도 문정 왕후의 강인한 의지를 꺾지 못했다.

문정 왕후의 마지막 대작 불사, '회암사 400탱'

문정 왕후는 젊은 시절부터 불심이 깊어서 중종이 살아 있을 때부터 내수사를 통해 많은 불사를 벌였다. 문정 왕후의 불사는 현존하는 불화의 화기(畵記)나 보우의 문집인 〈나암잡저(懶庵雜著)〉에 수록된 여러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문정 왕후 발원의 불화는 대부분 1560년대에 조성된 것들이다. 화기의 내용을 보면, 국왕인 명종의 무병장수와 자손 번창 등 왕실의 안녕을 위해 발원한 것이 대다수이다. 이는 명종이 병약했다는 점과 그의 후사가 귀했다는 점과 직결된다. 명종은 평생을 통틀어 인순 왕후 심씨(仁順王后 沈氏)와의 사이에서 아들 한 명을 두었을 뿐이다.

예컨대, 문정 왕후는 1562년(명종 17)에 나라의 평안, 자신과 명종의 무병장수,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며 200점의 나한도를 조성해 삼각산 향림사(香林寺)에 봉안하게 했다.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LACMA)에 소장된 '향림사'명 제153덕세위존자도가 바로 200점의 나한도 중 하나이다. 한 폭에 한 분의 나한을 배치한 작은 크기의 불화로, 섬세한 필치, 금니의 사용에서 16세기 왕실 발원 불화의 화격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수작이다.

이처럼 문정 왕후는 왕실의 안녕을 빌며 수백 점으로 구성된 불화 세트를 일시에 조성해 봉안하게 했다. 1565년(명종 20)의 '회암사 400탱(檜巖寺 四百幀)' 조성은 문정 왕후가 말년에 봉행한 대규모의 불화 불사이다. 왕실의 숭불에 대한 유생들의 비판이 빗발치는 가운데 문정 왕후가 이 불사를 봉행한 배경에는 당시 왕실의 절실한 위기의식이 있었다. 명종의 유일한 후손인 순회 세자(順懷世子, 1551~1563)가 1563년에 요절한 후, 왕실에는 왕통을 이을 세자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문정 왕후는 아들인 명종의 장수와 선정, 왕실의 안녕, 그리고 며느리인 인순 왕후 심씨가 세자를 낳기를 바라며, 보화를 내어 대불사를 벌였다. 석가, 미륵, 약사, 아미타 그림을 각각 금으로 50점, 채색으로 50점씩 제작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제작된 총 400점의 불화는 왕실의 원찰이었던 회암사(檜巖寺)의 중수를 경축하는 자리에서 법에 따라 점안(點眼)하도록 했다. 400점의 불화는 경찬법회 후에는 왕실의 내원당(內願堂)을 비롯한 여러 사찰에 분산 봉안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400점의 불화 중 현재 소재가 확인되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약사삼존도, 일본 히로시마현 호주인(寶壽院) 소장 약사삼존도, 일본 나고야현 도쿠가와미술관 소장 약사삼존도, 일본 고치시 류조인(龍乘院) 소장 약사삼존도, 일본 효고현 고젠지(江善寺) 소장 석가삼존도,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석가삼존도 등 6점이다. 이 6점의 불화에는 동일한 위치에 보우가 지은 발문(跋文)이 금자(金字)로 적혀 있다. 이 외에 일본 교토시 사이묘지(西明寺)에 소장된 약사삼존도를 회암사 400탱의 일부로 보는 의견도 있다.

조선시대에 수백 폭에 달하는 불화를 일시에 조성해 봉안하는 대규모 불사는 문정 왕후의 불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1560년대에는 불사의 발원과 기획, 재원의 동원과 불화 재료의 수급, 불화의 실질적인 제작과 점안에 이르기까지 초대형의 불사를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문정 왕후가 원(願)을 세우면 보우가 불화의 도상을 기획하고 내수사에서 왕실 소유의 재산으로 비용을 수급하며 양공(良工)을 동원해 불화를 제작하고, 완성된 불화를 이운해 각지의 사찰에 봉안하는 일련의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을 것이다.

현존하는 '회암사 400탱'의 화기에는 양공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지만 전반적인 구도, 본존의 표현과 세부 묘사에서 많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본존의 뾰족한 육계와 그 위에 올려진 계주,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허리가 긴 신체 등은 회암사 400탱 외에도 16세기 조선 왕실에서 발원한 불화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표현이다. 이는 당시 궁정을 중심으로 미술 양식이 공유되고 있었으며, 회암사 400탱이 궁정 화가인 도화서(圖畫署)의 화원들에 의해 그려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금빛으로 남은 왕후의 불심

1565년(명종 20년) 4월 6일, 창덕궁 소덕당(昭德堂)에서 문정 왕후는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문정 왕후는 "불교가 이단이긴 하지만 조종조 이래 있어 왔고, 교종과 선종도 또한 나라에서 승려들을 통솔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니, 끝까지 옛날 그대로 보존하라는 유교(遺敎)를 남기고 타계했다. 비록 문정 왕후의 사후 일시에 급변했지만, 불교를 외호하고 나라의 안녕을 빈 대비의 마음은 금으로 그린 불화 속에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남아 있다.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佛心〉 〈佛畫〉



'향림사' 명 제153덕세위존자도, 조선 1562년, 비단에 수묵담채, 화면 44.5×28.5cm,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 소장. 사진=LA 카운티 미술관



약사삼존도, 조선 1565년, 비단에 금니, 화면 54.2×29.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석가삼존도, 조선 1565년, 비단에 채색과 금니, 화면 60.5×32.0cm, 메리 그릭스 버크 컬렉션,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사진=메트로폴리탄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약사삼존도 세부.
사진=국립중앙박물관

건강식품 대특가! 단 100세트 한정 특별할인판매

기간 : 오늘부터 ~

세계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모방불가능! 세계 최초 기술력!
관절·연골·칼슘을 한 번에 챙기세요!

① 에이펙셀 관절연골튼튼
✔ 세계최초 기술력! 관절+연골 집중 케어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증정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하루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관절 지키기!



② 한국칼슘왕 (나노칼슘)
✔ 세계최초 나노입자 칼슘으로 흡수력 UP!
사은품: 본추관절정 2통 (2개월분)
정가 40만원 → 특판가 34만원
→ 나이 들수록 중요한 칼슘! 뼈부터 챙기세요!



③ 본추관절정 2+2 행사
✔ 관절과 연골에 딱 맞는 4개월 구성!
1세트(2통)+사은품 2통 → 총 4통 (4개월분)
정가 396,000원 → 특판가 15만원
→ 무릎, 어깨, 허리까지! 50% 할인 찬스!



■ 지금 전화주세요! 선착순 100분 한정판매!
■ 수량소진 시 예고 없이 종료됩니다!
■ 택배무료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는 인터넷 마하몰 www.mahamall.co.kr에서 주문시 가능)
■ 상담 : 1688-9099 ■ 신한은행100-036-429749(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우주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 나느라고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덥고 추운 것을 놓으라고 부처님께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높고 낮고, 크고 작고, 여자 남자, 동서남북 모두가 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더 병고가 많으신 거 같고, 요사이는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게 많은가 하면, 차라리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어디가 깨졌다거나 이러한 문제라면 병원엘 아주 재깍 가야 하겠지만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일을 가서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는 일이죠. 아마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아무리 가서 해 봤던들 어차피 죽을 거라면 구태여 몇 달 더 살면 뭘 하고 덜 살면 뭘 하나.' 하는 그 믿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의 주인을 투철히 믿고 거기에 맡겨 놓는 데에 묘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나가는 데도 고통이 많은데, 병고에 휘달리고 또는 자녀들을 키우는 데 휘달리고 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휘달리고 사람 살길이 참 얼마나 천차만별로 고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름이 위대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고가 없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큰 괴로움이 있는 집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아집과 아상과 또는 욕심과 착 이런 거를 다 버리신다면, 그러고도 거기다가 놓고 거기에 맡겨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밝게 한마음의 등이 켜지게끔 한다면, 자녀들도 이탈을 안 할 것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내놓는 그 새싹들도 역시 뿌리가 튼튼하고 싱싱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마음,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한 생각 내서 악으로 가느냐 또는 마음 한 생각 잘해서 영생을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속에 들어 있는 그 입력된 사실과, 입력된 그 자리에 도청이 돼 있다는 그 사실과, 팔자 운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점을 여러분한테 아마 수차적으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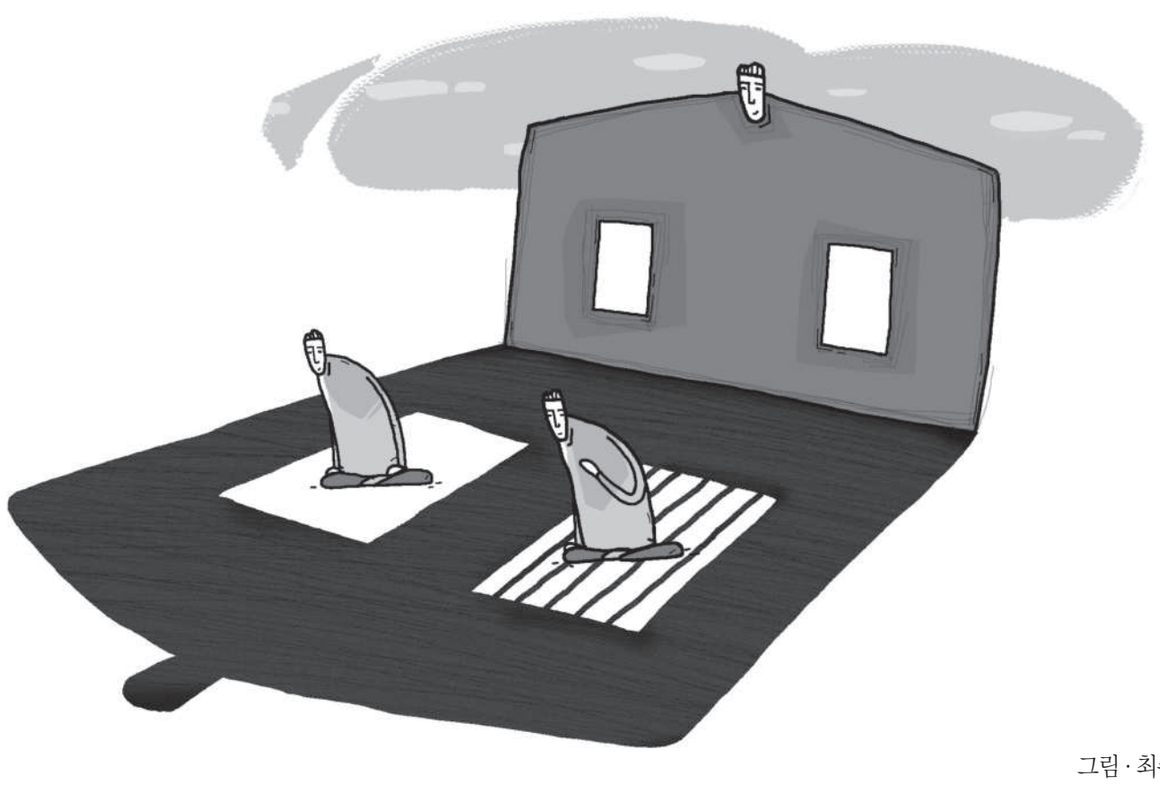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운명이니 팔자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저질러 놓고 "아이, 그건 운명이야. 죽는 것도 운명." 이러죠. 그러나 그 운명이라는, 팔자라는 그 말이 말입니다, 어처구니없이 여러분이 저질러 놓고 당하는 것을 그냥 위안이라도 할 양으로 "그게 운명이야!" 하는 거지, 그 운명이라는 이름이 사람들한테 다 붙어 있답니까? 누가 뺏어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갖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써 구성해서 자유스럽게 살 수 있고 멋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인데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지수화풍이 바탕으로 돼 있어서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바로 재료로 갖춰져 있고, 여러분이 능히 오신통을 굴릴 수 있는 재료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거는 미리 말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믿고요.

우리가 이 공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요 내 몸 안에서 이탈을 하고 또 내 가정에서 참, 점프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감옥 아닌 감옥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배우시지만, 이 마음 하나가 우주를 조절하고 이 세상을 조절하고 평화 문제 또는 남북통일 문제와 수많은 청소년들 문제를 조절하고, 정치하는 사람들과 과학자들을 조절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하게 마음의 등불을 켜 준다면 우리가 모두를 건질 수 있는 그런 이치도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조그마한 나라에도 아주 새 빛으로서 역력하게 역사를 이끌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앞에 아마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입 걸러 두 입 건너, 한생각에 바로, 여러분 한생각이 우주 법계에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딴 사람이 아무도 몰라도 우주간 법계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풀 한 포기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즈음 인구가 너무 많이 팽창됨으로써 생기는 병들, 우리 마음들이 산란함으로써 그 혼백, 즉 영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세균과 그 영계성이 너무도 많이 꽉 찼다고나 볼까요? 그럼으로써 알지 못하는 병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빈 까닭에 그저 빈집을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며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은 어떻게 되며 우리 지구는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있어서 조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다면, 여러분의 한생각에 우주 법계를 울릴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이걸 보통 우리 마음의 공부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말 한마디 할 때에 여러분이 미쳤다고 하거나 또는 옛날에 소크라테스나 달마대사 같은 사람들, 약사발을 안겨서 죽일 정도로 지금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는데, 우리가 이 공부가 중요하다는 그 점,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하는 데 중요한 점은 우리 지구라는 혹성도 혹성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걸 조절해 나가는 일, 세계평화도 바로 우리의 마음의 조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의 수명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고, 당장 부딪치는 자원 문제, 즉 말하자면 인구가 팽창됨으로써 우리 지구의 자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한테 달렸다고 봅니다. 그뿐입니까? 바로 인구 이 자체의 팽창도 여러분의 마음의 조절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주간 법계에서 모두 한마음으로써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주간 법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불이라는 것은 아주 그대로 영원히 변함없이 흘러 도는 이런 불덩어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그 자기의 자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불성, 그 불성이 바로 그러한 능력으로 충만하기에 우리 마음들이 자전하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법계의 법바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 안에서 벗어나서 법바퀴를, 우주 전체 법계를 두루 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고도 남음이 있는, 과학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실 겁니다. 물론 과학자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것은 부처님 당시에 말씀해 놓으신 거나 지금 우리가 하고 가는 거나 증명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무엇에 쓸 것인가?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또는 나라를 이뤄서 정치도 하시고 이 모두를 하고 가시는데, 나한테 주어진 여건이 있어야만 이 용기가 나고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여건이 충만하게 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아예 그냥 여건이 주어지지 않죠. 그리고 힘도 빠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주인을 투철히 믿고 거기다 맡겨 놓아라

☞ 19면에서 계속

집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마음공부를 해서 무엇에 쓸 것인가?

첫째는 나로부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실천을, 즉 내 몸속에 있는 그 의식,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뭉쳐서 요리할 것. 둘째, 그 요리를 한다면 바깥으로 남을 이익하게 전부 조절할 것. 셋째, 우리가 그 마음이 충만하다면 어떠한 것이든지,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여건들이 모두가 내가 돼서, 즉 가고 옴이 없이 나툼으로써 바로 내가 되어서 그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세계평화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건과 더불어 이 우주의 근본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우주도 조절할 수가 있죠. 우리 지구에만 생명이 살고 있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이 마음공부 하는 것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꿰뚫어 보고 조절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꿰뚫어 본다 해도 부처님께선 그걸 도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보기만 하면 뭘 합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행하지 못하는데. 내가 집어먹을 수 있고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도지, 어찌 보기만 하는데 도라고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가고 올 수 있어도 도가 아니니라. 또는 남의 속을 빤히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다고 말할 건덕지도 못 되느니라. 즉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못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묵묵히 걸어가면서 한 발 한 발 실천을 하는 데에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써, 아집을 갖지 않는 마음으로써, 또 관습을 갖지 않음으로써, 우린 통틀어 내놓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실천을 해야죠, 첫째. 그것이 역시 내가 아님이 없는, 내 발 아님이 없는, 평발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들어서도 아시겠죠. 발이 밋밋하고 평등해서 평발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느 벌레의 발 하나라도 내 발 아님이 없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했겠죠.

여러분은 '이 마음공부를 해서 어디 써먹을 것인가?' 또는 '그 마음공부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아이구, 그저 왔다 갔다 하다가 병이나 나으면 고만이지.' 이런 정도로만 공부를 하신다면, 병 자체도 못 고치거니와 여러분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도 제도 못 할 것입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과학이다 뭐다 하지마는 원자에서 그렇게 입자가 많아서 분자로 화해서 수없이 대기권을 지키고 나가는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모르시더라도 잘 생각해 두십시오.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모르는 게 약이지만 그건 설 알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안다면 아는 것이 약이지 어찌 모르는 것이 약이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게 약이겠죠. 알고 모르는 척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모르는 것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팔자 운명을 자초하는 것이죠.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지, 죄는 없습니다. 붙을 자리도 없고 운명도 팔자도 붙을 자리 없습니다. 이거 엉터리로 주워 모아서 막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체계를 세우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값비싼 건 줄 몰랐다 하는 생각을 가져 보십시오. 마음공부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물리가 터져서 우주간 법계와 더불어 개미 한 마리도 따로 없이 돌아간다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이 얼마나 기묘하고 보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별성이 얼마나 많은가.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구는 참, 나라마다 조절할 수 있고 "몇이냐? 몇 억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별성이나 혹성이 얼마나 많은지는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혹성만 하더라도 지금 아홉 개니 열 개니 이렇게 따로 태양을 끼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에만 이렇게 생명이 살고 움죽거린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6·25 때 나이 젊었을 때 얘깁니다. 6·25 때 접시비행기를 봤습니다. 그때는 여기서도 봤다 저기서도 봤다 야단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저기 내려다보이는, 저 아래 내려다보이는 데까지 앉은 걸 봤습니다. 여자로 보이는데 여자 하나를 듬뿍 안더니만 그리로 태우고 선, 그 양쪽에 모두 고슴도치 같은 것도 있습디다. 얼마 크지도 않은 것이 밑으로다가 철컥 뭐가 내려오니까 그냥 그리로 머리만 이렇게 수그리니까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거를 똑똑히 저 아래 틈에서 봤거든요.

그래도 나는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하고 '아휴! 지금 싸움이 벌어졌으니 저런 비행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때는 영 몰랐습니다. 그러곤 그냥 가깝게 얕이 떠서 그냥, 반딱반딱하면서 자유자재하는데 '야! 저런 비행기가 있으니 우리가 질 수밖에.'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후에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지구에만 사람이 산다고는 절대 못 합니다. 그리고 뜨거워서 생명이 없고 차서 생명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어디다 쓸 것이냐 하시지마는 우리 불종(佛種)을, 참 '선의 불종' 이 자체는 이 '악의 불종'의 무리를 없애기 위함이요, 또는 '악의 불종'을 없앰으로써 우리 각 금성이나 저, 토성 같은 데도 생명의 존재가 살 수 있게, 움죽거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넓히면 크고 좁히면 작고, 고무줄 인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고무줄 같은 마음을 좀 더 우리가 계발해서, 정신계로 발전을 해서 계발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러한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 '악의 종'에 '선의 종'이 딱 거기에 입력이 된다면, 그것이 스스로서 착해지고 그 모습을 아주 밝게, 자력과 광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것이라는 얘깁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믿어지지 않아도 앞으로 믿어지게끔 될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증명되려면 한 백 년 거리는 두어야죠.

그러나 그 작업이 뭐가 문제냐 하면 악종, 잠들어 있는 악종을 우리가 바로 선종으로 깨닫게 해 줘야만이 그것을, 말하자면 모든 언 조건이나 뜨거운 조건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증명도 안 되거니와 그러나 이건 엄청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자동적인, 끝 간 데 없는 진리 속에서 우리가 회합을 하고 모두의 마음이 같이 동조하고 같이 이룩해야 한다는 문제를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첫째,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나쁘게 될 일이 없죠.

그때에 접시비행기를 볼 때, 그때는 몰랐는데 그후에 생각을 하니까 '아, 저런 사람은, 저런 비행기를 움죽거리는 사람들은 너무 에너지가 많아서 우리들이 범접을 못 하게끔 돼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가 많아지는 반면에 자원이 부족해지고 능력이 손상되고, 정신을 뺏기고 이러는 수가 많습니다. 혼을 뺏기는 수도 많고요.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집주인이 없다면 여러분은 다른 세계에 혼을 악으로 뺏길 수도 있죠. 선은 뺏어 가고 뺏어 오고 하는 것 없이 여러분에게 성능을 더 넣어 주려고 애를 쓰지만, 악으로써 넣어 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혼을 뺏기 때문입니다. 악으로써 존재한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되며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태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태양이 끼고 돌 수 있는 그 별성들은, 그 생명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똑같습니다, 수명이 길고 짧을 뿐이지.

그러니 여러분의 그 마음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의 그 한마음 주인공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에 병고를 앓고 있는 사람마저도 해롭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해롭고, 어떠한 요건에 대해서든가 용도에 따라서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깐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죠.

서산 대사는 왜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렸겠습니까? 괜히 새를 죽이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공부시키느라고 학인들을 위해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계란도 거꾸로 쌓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보이는 데 계란을 쌓고, 보이는 데 떨어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생각에 지금 우주를 한꺼번에 보고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한쪽만 봐서도 아니 되죠. 우주복을 입고 지금 화성에도 가고, 달에도 가고, 많은 과학자들이 선동을 해서 그렇게 가곤 했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쓰고 다녔지마는,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데 50%를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 마음들하고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견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 한쪽에만 가 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구에도 만약에 저 북극이나 남극에 침투했다고 봅시다. 사람이 살아 있다고, 산다고, 생명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지구 안에도 모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북극을 따라서 해안을 쫓아서 섬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문제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도 '물 밑에, 태양열이 들어가지 않는 깊은 데 있는 생명들을 건지기 위해서 파도가 치고 소용돌이를 친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음이 언다.' 하는 것도 더운 김과 찬 김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바로 도전이다, 그리고 작업이다 이런다면 그 얼음 하나도, 파도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죠.

차차로 여러분이 이 공부를 소중히 알고 열심히 하신다면 과학자들이 해결 못 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서 해결하게, 아마 그 마음이 응해 주실 겁니다. 가고 옴이 없이 말입니다. 하는 사이 없이 하고, 보는 사이 없이 보고, 듣는 사이 없이 듣고, 자유자재권을 한 손에 쥐고 중용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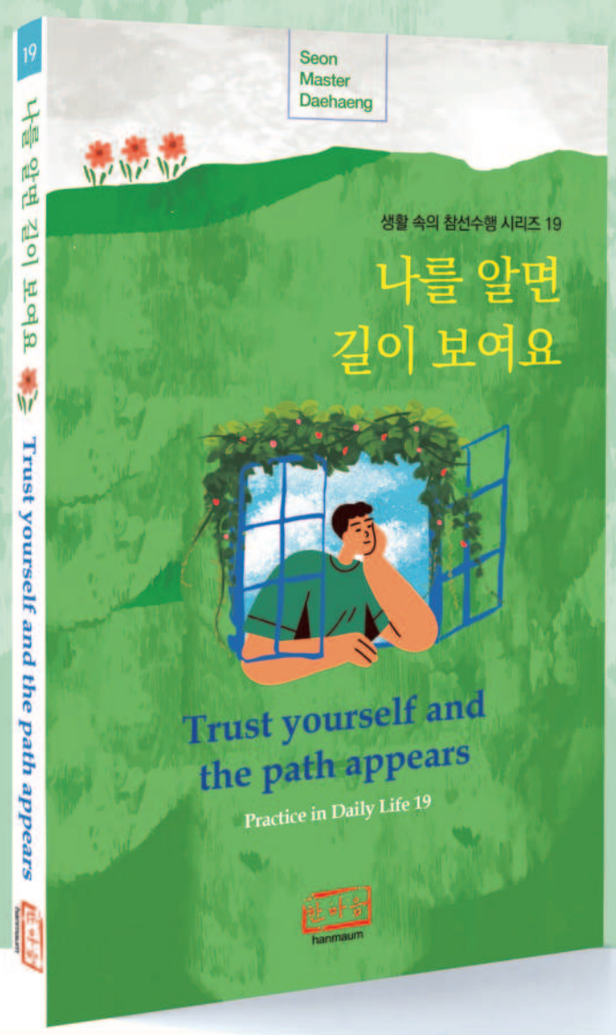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면서 한 발 한 발 실천하는 데에 게으름이 없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물러서지 않는 마음, 아집을 갖지 않는 마음으로써
통틀어 내놓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8월 18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㊹ 말하는 법을 강조한 부처님, 대화법(2)

바꾸려는 마음 내려놓을 때 대화 열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상담실에 앉아 있던 한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아내의 말을 끊었다. 아내는 그 순간 고개를 떨구었다. 내용은 집안일과 아이 문제였지만, 말속에 숨은 의도는 분명했다.

"네가 변해야 한다."

대화는 그렇게 끝나 버렸다.

우리가 충고, 조언, 평가를 하는 순간, 그 안에는 "너는 틀렸고, 내가 옳다"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 좋은 뜻에서 한 말이어도 상대는 그 의도를 먼저 감지한다. 그래서 마음을 닫고 방어 태세를 갖춘다.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말하는 순간, 설명을 들으려 하기보다 반박할 거리를 찾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부부 사이뿐 아니라 직장,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부모가 "너는 공부를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하는 순간, 자녀는 그 말의 이유보다 '내가 틀렸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먼저 받는다.

바꾸려는 마음은 대화에서 방어와 거리를 만든다. 충고를 들은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내가 평가 받고 있다'는 감각을 먼저 느낀다. 그 순간 대화는 연결이 아니라 논쟁이 된다. 관계의 힘의 균형도 무너진다. 충고하는 쪽이 '위'에 서고, 듣는 쪽이 '아래'로 내려가면 변화보다 거부가 먼저 온다. 결국 정서적 거리까지 벌어져, 관계를 위한 대화는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려면 먼저 나를 들여다봐야 한다.

"나는 왜 저 사람을 바꾸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마음 뒤에 불안, 통제 욕구, 완벽주의가 숨어 있음을 발견할 때가 많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불편함을 줄이고 싶어서다. 이 욕구의 밑바닥에는 '내가 옳다'는 확신과 '상대가 변해야 관계가 좋아진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줄이려는 의도가 더 크다. 상대를 바꾸려는 말은 종종 '내가 편해지기 위해' 하는 말이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면, 그 말은 관계를 회복하기보다 오히려 틈을 넓힌다.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을 이어가야 한다.

첫째, 판단을 빼고 사실만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게으르다" 대신 "이번 주에 재활용 쓰레기가 쌓인 것 같아"라고 표현한다. 판단을 뺀 말은 처음엔 어색하지만, 상대가 방어하기보다 대화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상대를 탓하기보다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당신은 늘 제멋대로야" 대신 "그래서 나는 좀 서운하고 답답해"라고 말한다. 감정을 드러내면, 상대가 나의 경험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셋째, 내 감정 뒤에 있는 진짜 욕구를 알아차린다. "나는 함께 있다는 느낌, 연결감을 느끼고 싶었어"처럼 말이다. 욕구를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고, 대화의 방향이 분명해진다.

판단 빼고 사실 말하며 욕구 알아차려야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 관계 변화 이끌어

넷째, 강요가 아닌 선택권을 주는 요청을 한다. "지금 말해 보라고!" 대신 "오늘 저녁에 잠깐 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건넨다. 선택권이 주어지면 대화는 강제에서 자발로 바뀌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내려놓기를 실천하면, 변화보다 먼저 안전감이 만들어진다. 변화는 설득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상대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린다. 부처님은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말은 상대 마음에 닿는 향기가 된다.

현재 필자가 공부하고 있는 게슈탈트 상담은 '지금-여기'와 '알아차림'을 치료 핵심으로 삼는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억지로 통제하기보다, 현재 순간의 나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를 강조한다. 알아차림이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사념처(四念處), 알아차림 수행과 비슷하다.

게슈탈트 상담자가 요구받는 기본 자세는 '변화의 역설(paradoxical theory of change)'이다. 변화의 역설이란 사람이 다른 모습이 되려고 억지로 애쓸수록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때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쓸수록, 마음속에서는 '바꾸고 싶은 나'와 '있는 그대로의 존중받고 싶은 나'가 충돌하고, 그 저항이 커질수록 변화는 멈춘다. 상담자는 미리 준비한 과제나 목표를 적용하기보다,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반응에 맞춰 개입한다. 목적은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함께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대화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바꾸려는 마음은 압력이 돼 상대를 방어하게 만들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는 안전감을 형성해 마음을 열게 한다. 실제 상담에서도, 한 부부가 서로의 단점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췄을 때 오히려 대화가 길어지고 웃음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 진정한 변화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는 말에서 시작된다.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다. 말은 칼이 될 수도, 다리가 될 수도 있다. 내려놓기를 배울 때, 말은 관계를 잇는 다리가 된다. 그리고 그 다리는 서두르지 않아도 조금씩, 그러나 단단하게 서로를 이어 준다.

*현대불교신문 부산주재기자이자 가족상담전문가로 지역 가족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건강 365

㊺ 팔꿈치 통증의 원인

반복 동작 줄이고 적절 치료 받아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면 테니스나 골프 같은 야외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팔꿈치가 아파서 라켓이나 골프채를 잡기조차 힘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테니스 엘보우' 또는 '골퍼 엘보우'로 불리는 질환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내측 상과염'(골퍼 엘보우) 또는 '외측 상과염'(테니스 엘보우)입니다. 팔꿈치 관절 주변에는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가 있는데, 이를 '상과'라고 부릅니다. 이 부위가 반복적인 과사용이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 상과염이며, 위치에 따라 내측 또는 외측 상과염이라고 부릅니다. 내·외측 상과염은 운동선수들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사 노동, 컴퓨터 작업, 또는 반복적으로 팔을 움직이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도 흔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테니스 엘보우 · 골퍼 엘보우인가요?

이 질환은 특정 운동이나 활동과 관련이 많아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테니스 엘보우는 테니스 선수들이 라켓을 반복적으로 휘두르는 과정에서 팔꿈치 바깥쪽 힘줄이 손상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별명이 됐습니다. 골퍼 엘보우는 골프 스윙처럼 팔꿈치 안쪽 힘줄에 무리가 가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하지만 테니스나 골프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팔을 사용하는 모든 활동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외측 상과염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가지 이유로 치료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1. 늦은 진단: 환자분들의 병원 방문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프자마자 오는 경우도 드물고, 아프더라도 며칠 쉬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 치료 시기를 놓치고 병변이 만성화된 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반복적인 사용: 손을 안 쓸 수도 없고, 특히 직업과 연관된 경우가 많아 염증이 나아지기 전에 힘줄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서 회복이 더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혈액 순환 부족: 힘줄에는 혈액 공급이 적기 때문에 손상 부위가 치유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진단과 치료, 어렵지 않습니다

진단은 대부분 환자의 증상과 병력, 신체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테니스나 골프 등 팔의 반복적 사용 원인
손목 · 팔꿈치 근육 강화 운동 재발 막아

1. 문진: 통증 위치와 강도를 파악합니다.
2. 신체검사: 팔꿈치를 움직이거나 특정 부위를 눌러 통증이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3. 영상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또는 MRI를 통해 힘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드물게는 수술적 치료로 나뉩니다.

1. 약물 치료로는 소염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심한 경우 염증 부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아 통증을 완화합니다.
2. 물리 치료는 온열·냉찜질, 충격파 치료, 그리고 팔 근육 스트레칭 및 강화 운동을 포함합니다. 특히 충격파 치료는 조직의 재생을 도와주는 것으로, 치료 시에는 통증이 동반되지만 좋은 결과를 보여 줍니다.
3. 수술적 치료는 약물이나 물리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되며, 손상된 힘줄을 제거하거나 재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외측 상과염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팔꿈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반복적 동작 줄이기: 팔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중간에 쉬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올바른 자세 유지: 운동이나 작업 시 자세를 교정하면 팔꿈치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보조기구 사용: 팔꿈치 스트랩이나 보호대를 사용하면 힘줄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재발을 막는 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외측 상과염은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따라서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1. 손목 강화 운동: 가벼운 아령을 사용해 손목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2. 저항 밴드 운동: 밴드를 이용해 팔꿈치 주변 근육을 강화합니다.
3. 스트레칭: 팔과 손목의 유연성을 높여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건강한 팔꿈치를 위해

내·외측 상과염은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말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에 올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팔꿈치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민영경
거인병원 병원장



전법 일기

전법도 중요하지만 출가 적극 권장해야

몇 년 전 미국에 계시는 한 스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내용인즉, 미국인 한 젊은 남성 재가자가 출가를 원해 한국으로 보내려 하니 화계사 국제선원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스님께서는 그 젊은이가 일요일마다 절에 나와 법회에 참석하고 절에서 울력도 열심히 하던 신도라고 하셨다. 또 화계사에서 머무르며 한국에 적응하고 있으면 얼마 후 입국해 행자 생활을 하도록 하겠다며, 종단과도 이야기가 됐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미국인 젊은이의 출가를 위한 절 생활이 시작됐다. 그리고 스님의 부탁대로 그 젊은이가 잘 지내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가끔 물어보며 살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그 젊은이가 한 미국인 여성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당시 화계사 국제선원에는 한국에서 어학원 교사로 일하는 젊은 외국인 여성들이 일요 명상 법회에 많이 참석하고 있었기에, 그중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듯 보였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젊은이가 이후 갑자기 말없이 사라져 버렸다. 한국에는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사라졌다니,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외국어학원 강사로 간 것인가?'라는. 미국에 계신 스님께 바로 연락해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니, 그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신심이 깊은 청년이라고 안타까워하셨다. 그 뒤에도 스님께서는 또 다른 미국인 젊은이를 출가시키기도 하셨다.

며칠 전에는 캐나다에서 온 젊은 남성이 사찰 안내소로 들어와 출가하고 싶다며 어떤 분과 상담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기에, 나는 곧바로 아는 스님께 연락 드려 출가 희망자가 있는데 받으시겠는지 여쭤보았다. 스님께서는 이분의 나이와 국적 등 몇 가지 신상 정보를 물어보셨다. 잠시 후 스님께서 다른 스님들과 상의하신 뒤, 절로 보내라고 답해 주셨다. 스님들께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불제자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계신다.

요즘은 출가 후 생활이 출가 전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다고 느껴, 행자 교육을 받고 바로 절을 떠나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스님 한 분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낮아져 출가 지원자도 턱없이 줄어들었기에 이 또한 불교가 당면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불자 한 분 한 분의 전법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출가에 뜻이 있는 젊은이가 있다면 적극 권장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숭산 스님 생전에는 화계사에 외국인 행자님들이 있어서 행자 교육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한글을 가르쳐 드리기도 했다. 합격한 행자님이 잿빛 승복으로 환복한 모습을 뵙고 기뻐했던 기억이 나지만, 요즘은 외국인 행자님도 드문 듯하다.

아무튼 그 젊은이가 면담 후 바로 주지 스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디 이 분이 부처님의 바른 제자로 중생제도하는 큰스님이 되시기를 일심 발원해 본다.



조진화 국제포교사



송마나의 **시절인연**

존재의 탈선, 열대야

여름 햇빛이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쏟아진다. 태양의 고삐에서 풀려난 빛들은 산과 바다와 사막을 가리지 않고 사정없이 퍼붓는다. 무자비한 여름빛은 사람이 사는 세상쯤은 안중에도 없다. 빌딩의 외벽을 달구고 아스팔트를 녹이며 공원에 놓인 벤치를 염전 바닥처럼 부석거리게 한다.

여름의 열기를 피해 바다를 찾았다. 해변은 사람들로 들끓었고 파도는 출렁이기를 포기한 채 더위에 지친 몸처럼 드러누웠다. 숲도 다르지 않았다. 제철을 맞은 매미들이 악에 받친 듯 울어 대자 바람조차 끼어들지 못하고 나뭇잎 뒤에서 머뭇거렸다.

여름은 아이들의 웃음이 폭죽처럼 터지던 계절이었다. 학생들은 방학에 들떠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볐고, 가족들은 피서 계획을 짜느라 가슴이 부풀었다. 시골 할머니들은 손자들을 맞으려 이부자리에 풀을 먹이고 모기를 쫓아낼 마른 쑥을 장만하느라 종종거렸다.

그늘 아래 부채를 부치며 아이스크림을 핥던 달콤한 여유, 저녁이면 식구들이 둘러앉아 수박을 자르던 순간, 얼마나 가슴이 설렜던가. 하지만 언제부턴가 공장에서 찍어낸 듯 똑같이 붉게 익은 수박은 그 설렘마저 앗아 갔다. 정겨웠던 여름 풍경은 이제 기억 속에서만 아련히 피어난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여름의 흰빛은 난폭하게 날뛴다. 급기야 올여름은 40도를 넘어섰다. 짧은 거리를 걸어도 태양 빛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두 눈을 찌른다. 정수리를 꿰뚫듯 자외선이 쏟아져 정신이 아찔해진다.

더구나 여름의 강렬한 열기는 낮을 초토화한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듯 밤까지 지배하려 든다. 우리는 낮과 밤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며 하루를 살아간다. 낮에는 노동의 땀방울을 흘리고, 밤에는 그 수고와 피로에서 벗어나 잠을 잔다. 잠은 치열한 삶을 정돈하는 영혼의 숨결이다.

열대야는 보석 같은 잠을 조각내어 어디론가 가져가 버린다. 빼앗아 간 잠에 대한 보상조차 외면한다. 잠은 살아 있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필수의 선물이다. 우리는 잠이라는 작은 죽음을 지나 새날을 얻는다. 깊이 잠들수록 새날은 더 밝고 활기차다. 그러나 잠들지 못한 사람에게 열대야는 결코 겪고 싶지 않은, 생의 리듬을 깨트리는 존재의 탈선이다.

열대야로 불면을 앓는 사람들은 침대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어디론가 흘러가듯 삶의 에너지를 방전시킨다. 마침내 불면은 우리의 의식을 흐릿하게 하고 정신을 서서히 피폐하게 한다. 나는 찢긴 잠의 틈새에서 몸을 일으켜 멈춰 버린 선풍기의 타이머를 다시 맞추고 찬물을 한 컵 마신다. 흐릿한 깨어 있음으로 창밖을 바라본다.

태양은 이미 졌는데, 왜 깊은 밤에도 불길은 꺼지지 않는가. 내 안에서 번뇌의 불꽃이 일렁거려 밤이 식을 줄 모르고 열기를 뿜어내는 것인가. 허공에는 그믐달이 아스라이 떠 있고, 벌레 떼가 붕붕거리며 어둠을 맴돈다. 머지않아 여름이 가고 서늘한 가을이 찾아오련만 나는 저들처럼 여름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면으로 뒤척이고 있다. 열대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놓아 버리면 잠들 수 있을까.

〈작가〉

기자칼럼

불교, 산사에서 일상으로

8월 7~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는 올해도 불교의 문턱을 낮추는 시도를 이어갔다. 단청 시연, 사찰음식 체험, 명상 프로그램, 불교 굿즈, 환경 캠페인 등 전시장 곳곳은 전통과 현대가 겹겹이 어우러져 마치 산사를 거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은은한 나무 향, 구수한 사찰음식 냄새, 명상 공간의 고요함이 관람객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마음굴림' 부스에서는 4일간 800여 명이 '근본에 연결하기', '감정 되돌려놓기' 등의 주제를 선택해 호흡과 성찰을 경험했다. 선명상 체험존에서는 소리 명상과 싱잉볼이 깊은 이완과 정화를 이끌었다. 한 참가자는 "마치 방전된 배터리가 다시 충전되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찰음식전에는 범어사, 황련사, 혜원정사, 홍법사 등 지역 대표 사찰들이 참여해 제철 식재료와 수행자의 마음이 깃든 사찰음식 체험과 발우공양 시연 등을 펼쳤다. "먹는 것이 곧 수행"이라는 메시지는 음식과 마음공부의 관계를 다시금 일깨웠다.

MZ세대들의 발걸음을 붙은 것은 '불교코어(Buddhism-core)' 감성을 담은 굿즈였다. '무소유', '비움', '명상' 등 불교의 철학적 메시지는 마음챙김과 힐링, 자기돌봄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과 맞닿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리보살' 업사이클링 캠페인도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폐자원 재활용과 환경 퀴즈 등에 많은 이들이 호응했고, 불교가 환경과 사회 문제에서도 실천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불교박람회는 사찰에 머물던 수행이 거리로, 가정으로, 그리고 일상으로 스며들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수행이 환경·문화·예술·공동체와 결합할 때 불교는 더 넓은 세상과 대화할 수 있다. 체험 속에 오간 미소와 대화는 그 첫걸음이었다.

이제 그 걸음을 일상에서 이어가야 한다. 매일의 삶 속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길이 되고, 그 길 위에서 불교의 지혜는 살아 숨 쉴 것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내 돈’에서 ‘우리 복’으로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정사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화제다.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고, “세금은 우리가 냈는데 생색은 정부가 낸다”는 불만도 있다. 세금은 본질적으로 강제된 보시(報施)다. 종교의 보시는 자발적이지만 세금은 의무적이다. 그러나 자발이든 강제든 결국 어려운 이를 돕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쓰인다. 보살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내가 사회 속에서 지은 공덕의 회향’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단순히 물질의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회향으로 본다. 내가 낸 세금이든 누군가의 기부금이든, 그것이 사람의 삶을 밝히고 인연을 이어 주며 울컥하는 감동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수행의 방편이다. 돈이 어디서 왔는가보다,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소비쿠폰은 사용하면 사라진다. 그러나 그때의 웃음, 잡은 손의 온기, 밥상 위에 흐르던 따뜻한 공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 그러니 불자라면 받았다면 감사히 회향하고, 받지 못했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 인연을 응원해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연 따라 오고, 그 인연이 복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불교에는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물건도 실체로 집착하지 않는 보시다. 반대로 ‘내가 준 것’을 내세우고, ‘내 돈으로 저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고 분노하는 것은 ‘집착보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각자가 사회 속에 보시해 온 업의 회향일 수 있다. 복은 내 뜻대로 오지 않고, 인연 따라 오는 법이다.

보살의 관점에서 본 ‘소비쿠폰’
사회 속에서 지은 공덕의 회향
수행 시험하는 현세판 보시 도량

우리가 낸 세금으로 생색은 정부가 낸다? 맞다. 정부의 생색도 업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상에서 이미 수없이 생색을 내며 살고 있지 않은가. 밥을 사 주고 “내가 샀다”고 하고, 도움을 주고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며, 자녀에게도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반문한다. 남의 생색은 지적하면서 내 생색은 돌아보지 않는다. 이것이 중생의 미세한 미혹이요, 무명이다.

혹시 ‘나는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분명하다. 복은 심은 땅에 맺힌다. 지금 받지 못해도 그 복은 언젠가 돌아온다.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에, 아니면 가족에게, 아니면 마음의 평안으로 온다. 눈앞의 혜택이 있어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흐르고 있는 인연 속에서 내 공덕도 함께 흘러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돈은 그저 도구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쥔 마음이다. 쿠폰을 손에 쥐고 “이게 무슨 꼼수냐” 하면 그 마음은 괴로움이 된다. 반대로 “이걸로 인연을 덜어 내자” 하면 그 마음은 이미 공덕이 된다. 소비쿠폰은 정부의 정책이면서, 우리의 수행을 시험하는 현세판 보시 도량이다.

한 장의 쿠폰을 불보살의 마음으로 쓰는 것이 생활 속 보살행이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 혜택을 통해 누군가의 미소를 만들고, 그것이 복전(福田)이 되어 나와 인연 맺은 중생에게 회향되었으면 한다. 이 시대를 사는 불자로서, 복 짓는 마음으로 회향하는 삶이 되기를 서원한다.

1초 뉴스, 사라진 성찰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을 재편하면서 뉴스 소비 양상은 최근 몇 년 사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침 신문과 저녁 TV 뉴스가 하루 정보의 흐름을 규정했지만, 이제 뉴스는 하루 24시간, 손바닥 위에서 실시간으로 공급된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SNS의 30초 속보 영상을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는 포털 메인 속보를 클릭해 제목 몇 줄로 이슈를 파악하며, 퇴근길에는 유튜브 1분 브리핑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기다림은 사라지고 뉴스 소비는 즉시성의 속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분과 초 단위로 쪼개진 시간을 살아가는 ‘분초사회’라는 압축된 시간 감각이 자리 잡고 있다.

분초사회에서 뉴스는 짧고 강렬해야 선택받는다. 스크롤 몇 번, 손가락 두세 번의 터치면 하루의 주요 이슈를 소화할 수 있다. 여기에 맞춤형 알고리즘이 결합하여 사용자가 관심 가질 만한 뉴스만을 선별적으로 노출한다. 그 결과 뉴스는 깊이 있는 분석보다 즉각적 이해와 반응을 유도하는 정보 조각으로 변모하고, 공론장의 맥락은 점점 약화된다.

이 흐름은 소비경제에서 경험경제로의 전환과도 맞물린다. 경험경제는 상품이나 서비스보다 경험 자체를 가치의 중심에 둔다. 뉴스 역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참여·공유·감정 몰입이 결합된 경험으로 재구성된다. 실시간 댓글, 라이브 방송,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은 독자를 정보의 수용자이자 생산자로 만든다. 그러나 강렬한 체험성은 복잡한 사안을 단순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강화하며, 정보의 정확성과 맥락을 희생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디지털 기술로 뉴스 소비 양상 변화
‘분초사회’서 정보 정확성·맥락 희생
‘깊이’ 회복으로 비판적 성찰 실천

여기에 주목경제의 경쟁 논리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수많은 뉴스와 콘텐츠가 시선을 붙잡기 위해 자극적 제목, 몰입형 영상, 실시간 푸시 알림을 총동원한다. 클릭 수와 체류 시간이 광고 수익과 직결되기에, 언론사와 플랫폼은 점점 더 강렬하고 감각적인 뉴스 경험을 설계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도 화제성이 떨어지면 외면 받고, 대신 갈등·스캔들·극단적 사건이 뉴스 공간을 과도하게 점유한다. 공론장은 흥분과 분노를 자극하는 콘텐츠에 기울고, 심층 분석과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이슈는 배제되는 구조적 왜곡이 심화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언론과 플랫폼은 속도와 흥미를 확보하면서도 질적 깊이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알고리즘 추천 속에 심층 보도와 맥락 제공 콘텐츠를 배치하고, 클릭 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신뢰성 있는 보도에 보상하는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이용자는 속도와 자극에만 휩쓸리지 않고 다양한 출처와 관점을 탐색하며, 짧은 속보 뒤에 숨은 배경과 함의를 살피는 뉴스 리터러시를 실천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 분초 단위의 속보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관찰하는 정념(正念)의 태도가 필요하다. 눈앞의 뉴스에만 반응하기보다, 그 이면의 인과와 맥락을 비추어 보는 성찰이야말로 혼탁한 정보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로운 뉴스 소비 방식이다.

社 說

이주노동자 죽음, 자비로 응답해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름 대신 국적과 사고 원인만 남은 이 비극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스님)는 8월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내국인 노동자의 죽음과 비교해도 너무나 차별적인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하청·재하청 구조 속에서 생계를 이어 가는 이주노동자들의 존엄은 죽음 앞에서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그간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긴급조치를 요청하고, 산재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또 이 땅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노동자의 넋을 위로하는 49재를 봉행하는 등 실질적인 연대 활동을 펼쳐왔다. ‘모든 존재의 평등한 존엄’을 실천하는 귀한 발걸음이다.

그러나 종교계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이주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는 시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악몽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보살행이다. 사노위의 호소처럼 산업재해 없는 일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자 모두가 자비심으로 응답해야 할 때다.

대학생 눈높이 맞춘 전법교재 기대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세대의 불교에 대한 호감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입문서와 교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간 여러 종단과 단체가 다양한 전법교재를 출간했지만 ‘공급자’의 관점에서 제작돼 ‘수요자’의 필요와 정보 수용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대학생 전법교재 편찬위원회’를 출범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8월 11일 열린 출범 기념 워크숍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불자들은 불교에서 ‘정신건강 개선’을 가장 크게 기대했고 ‘윤리적 가치 실현’이 뒤를 이었다. 이는 전통적 교리 교육보다 실생활과 연결되는 불교를 원한다는 분명한 신호다.

또 부처님 생애 중 ‘깨달음’과 ‘마지막 순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를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처럼 서사적으로 풀어주길 바란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점은, 단편적인 지식 전달보다 스토리텔링과 체험을 통해 배우는 방식을 선호하는 세대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새로운 전법교재는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불교로 이끄는 ‘방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청년 야사에게 차근차근 설하셨던 것처럼, 초심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어올릴 맞춤형 서사가 필요하다.

인생의 방향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르게 뿌리내린다면 평생 삶의 지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 세대를 불자로 이끌 전법교재 출간을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8월 20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8월 20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8월 2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8월 20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메쉬 어싱(접지) 수행화

2025 신상출시

자연과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 지금 바로 느껴보세요!

특징 1 **뛰어난 통기성의 메쉬 소재** – 발이 숨 쉬는 듯한 쾌적함
특징 2 **맨발에 가까운 편안함** – 놀랍도록 가볍고 유연한 착화감
특징 3 **자연 통풍 구조** – 쾌적함을 극대화하는 설계
특징 4 **세련된 디자인** – 그레이 색상과 다크 그레이 솔의 조화



특별혜택 지금 구매하시면,
정가 80,000원 ⇒ **특별 할인가 65,000원**
어싱 효과를 더욱 높여줄 '어싱 양말'을 사은품으로 함께 드립니다!
(사이즈 : 225mm~280mm, 색상 : 미들 그레이)

하루 종일 답답한 신발 속에 갇혀 있던 당신의 발을 해방하세요.

'메쉬 어싱 수행화'는 맨발로 걷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발을 감싸는 부드러운 메쉬 소재는 뛰어난 통기성으로 언제나 쾌적함을 유지해주며,
놀랍도록 가벼운 무게는 당신의 발걸음을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땅과 나를 연결하는 '어싱(Earthing)' 기술로, 걷는 내내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1 벨크로 타입으로 편리하게 신고 벗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 맨발로 걷는 느낌을 최대한 주는 3mm의 탄력있는 밑창으로 발 건강을 향상 시킵니다.
3 어싱 신발에는 가죽 인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발 감각에 익숙치 않은 분을 위한 것이니 필요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45,000원 (무료배송)
사계절용(생활방수) ※ 사은품 : 어싱 양말



100% 핸드메이드 연꽃 복전함

장인의 손길
복을 담는 그릇

청정한 연꽃의 기운과
복을 모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동나무 원목 – 고급스러운 질감, 내구성 뛰어남
우레탄 금분 칠 – 오래도록 변색 없이 유지
복전함 & 박지문 양각 – 복을 모으고 지키는 의미의 상징
비밀 출금 구조 – 외부에서 절대 열 수 없음, 구입자에게만 안내
전용 출금 도구 제공 –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 제공

대형 (66cm×56cm×56cm) ⇒ 2,600,000원
중형 (56cm×46cm×46cm) ⇒ 2,300,000원
소형 (45cm 출시예정) ⇒ 1,900,000원


복 전 함 설치사례 부산 관음사



'박지문(博地門)' 글씨 양각 새김



돈 꺼내는 도구

맷돌의 미학, 커피의 철학

밀스톤 맷돌 커피 그라인더
Millstone

불교박람회를 핫하게 만든 맷돌커피

수동 압착식 원두 분쇄, 고흥석·오석이 빚어낸 원형의 미학과 기능성



정가 ~~1,800,000~~ ⇒ 할인가 1,400,000
특판 보급가
정가 ~~2,000,000~~ ⇒ 할인가 1,600,000

- 고흥석 원석 : 약 13.1kg
- 오 석 원석 : 약 14.1kg
- 크기 : 헤드 지름 16cm×받침 지름 26cm×높이 27cm
- 수동 회전 압착 분쇄 방식
- 반영구적 내구성 – 최고급 수공예품
- 국내 기술 특허 및 국제 기술 특허 등록



핸드드립 애호가와 홈카페 유저를 위한
'한 잔의 철학'을 담은 맷돌 그라인더

패키지 구성품
맷돌 본체, 커피 수납용 컵, 전용 브러시, 맷돌 손잡이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